

4

April 2023
Vol.376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Taeguk Mun



Marko Letonja



Jiyoung Lim



Bremer Philharmoniker

COLUMN

이제 정말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건가?

COVER STORY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 공연

클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게네라피우제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W

C

W

최고 권위의 빈 기타 국제 콩쿠르
2021년·2022년 우승자

빈 기타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2023.04.27.(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콘서트 가이드
국지연



주최



599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Mendelssohn and Bartók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지휘 금노상

바이올린 나승준 (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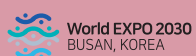
멘델스존 / “핑갈의 동굴” 서곡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버르토크 /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부산시립교향악단

www.bscc.or.kr



전래 동요에 의한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2023. 5. 4.(목) 19:30

5. 5.(금) 11:00

5.3.-5.4. 10:30 꿈꾸는 예술학교 단체관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기선 연출 이재원, 김인수 극본 및 작곡 이진실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편곡 이삼열
연주 2310밴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소연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08 Column
이제 정말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건가?

10 Cover Story
브람스가 사랑한 200년 전통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14 반갑습니다
제3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장 도용복

16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㉔
우리의 신화를 담은 그림 3

20 세계오페라축제 ㉔
'전통과 혁신' 파리 오페라

24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GP에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게네랄파우제

26 서울통신원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의 명암

30 Preview

38 문화가화제
2023 제41회 부산연극제
2023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42 Review

46 Program Guide

58 BSCC News

60 New Book

예술의 조대 April 2023 Vol.376

2023년 4월호 통권 376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3년 3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SUN	MON	TUE	W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공연</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3월 16일(목)-4월 27일(목) 평일 오전11:0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월-화요일 공연없음 • 입장료: 전석 2만원 (24개월 이상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전시</p> <p>부산시 수석연합회 합동전시회 4월 1일(토)-4월 2일(일) • 문의: 한바다수석회(010-6631-2303)</p> <p>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4월 26일(수)-4월 29일(토) • 문의: 부산광역시지회(245-2521)</p>	
2	3	4	5
9	10	11	12
<p>플레이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생일파티 대소동' 11:00, 14:00, 16:30 [예매] 7만원 · 6만원 / (주)엔투게더(070-4108-9999)</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예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36)</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예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36)</p>
16	17	18	19
<p>애니메이션 뮤직 페스티벌 with 또모 19:00 [예매] 또모(02-540-2706)</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예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36)</p> <p>베이스바리톤 박순기 독창회 19:30 [예매] 전석 2만원 / 아트내상스(010-9293-5854)</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예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36)</p>
23	24	25	26
<p>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봄에 들려오는 희망의 노래' 17:00 [예매] 10만원 · 7만원 · 5만원 / BMPO(070-7727-0188)</p>		<p>제55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19:30 [예매]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6563-6692)</p>	<p>제55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19:30 [예매]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6563-6692)</p>
30			
<p>2023년 AK21 안무가 경연대회 17:00 [예매]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p>			



ED	THU	FRI	SAT
			<p>1</p> <p>KNN방송교향악단 슈퍼스타 시리즈 '소프라노 서선영&바리톤 이동환 듀오콘서트' 19:30 대 12만원·8만원·5만원·3만원 KNN방송교향악단(010-7990-9568) ◆부산시립극단 제74회 정기공연 '집집·하우스 소나타' 17: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5	<p>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몬체르토 말라가'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유코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19:30 중 UKO(988-3087)</p>	<p>7</p>	<p>8</p> <p>플레이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생일파티 대소동' 11:00, 14:00, 16:30 중 7만원·6만원/(주)엔투게더(070-4108-9999)</p>
2	<p>13</p> <p>예술학교 '합창여행' 10:30 사업팀(607-3113, 3136) 예술학교 '재있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사업팀(607-3113, 3136)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있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36)</p>	<p>14</p> <p>힐링뮤지션 휴[Hue] 'K-POPERA Concert in Busan' 19:30 중 5만원·3만원·2만원/예감(1600-6867)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있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36)</p>	<p>15</p> <p>더 시네마 & 클래식 with 또모 - Jazzy Classic & Movie 19:00 대 또모(02-540-2706) 부산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 & Friends 17:00 중 5만원·3만원·2만원 마린세븐A&M(010-6295-8552) 김진세 기타 리사이틀 'RECORDA' 18:30 첼 5만원·3만원/파트티타(02-3471-0017)</p>
9	<p>20</p> <p>2023 부산음악대축제 I '신인음악회' 19:30 중 (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21</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부산음악대축제 II '양상블의 밤' 19:30 중 (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2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17:00 대 15만원·12만원·7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천종호' 15:00 중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현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17:00 첼 이현우(010-6472-9100)</p>
6	<p>27</p> <p>◆(재)부산문화회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19:3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더뉴 앙상블 기획공연 '플루티스트 길명훈 독주회' 19:30 첼 더뉴 앙상블(988-3087)</p>	<p>28</p> <p>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대 7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1600-180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Muy bien, 열씨구 좋다!' 19:3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9</p> <p>바이올린 권순지, 피아노 박지은 듀오 연주회 19:30 첼 박지은(010-4662-8456)</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여 확인바랍니다.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연예</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전시실</p> <p>관영화 제17회 개인전 4월 28일(금)-5월 7일(일) 전시실 1, 2 ※ 월요일 휴관 • 문의: 관영화(010-6575-3907)</p>		
<p>2</p> <p>라포엠 앨범 발매투어 'The Alchemist' 17:00 대 13만2천원 · 11만원 · 9만9천원 (쉬밭은누리(1566-9621))</p> <p>싱어롱 콘서트 뮤지컬_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11:00, 14:00 소 전석 3만5천원/극단 오즈(1661-6702)</p>	<p>3</p>	<p>4</p>	<p>5</p>
<p>9</p>	<p>10</p>	<p>11</p> <p>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11:00 소 광복회 부산지부(256-5815)</p>	<p>12</p>
<p>16</p> <p>디즈니 인 재즈 19:00 대 마르떼(055-312-0953)</p>	<p>17</p>	<p>18</p>	<p>19</p>
<p>23</p> <p>뮤지컬 '민짜미_사랑해요 엄마!' 11:00, 14:00 대 전석 6만6천원/DS뮤지컬컴퍼니(1577-4868)</p>	<p>24</p>	<p>25</p> <p>교보 노블리에 콘서트 '추억 속으로' 19:00 소 클래식그늘(010-3175-0711)</p>	<p>26</p>
<p>30</p>			

ED	THU	FRI	SAT
			<p>1</p> <p>라포엠 앨범 발매투어 'The Alchemist' 18:00 (대) 13만2천원 · 11만원 · 9만9천원 (취) 밝은누리(1566-9621)</p> <p>심어룡 콘서트 뮤지컬_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11:00, 14:00, 16:00 (소) 전석 3만5천원/극단 오즈(1661-6702)</p>
5	<p>6</p> <p>2023 부모공감 힐링 토크쇼 10:00 (소)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220-6213)</p>	<p>7</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유니버설발레단 '지젤' 19:30 (대) 9만원 · 7만원 · 4만원 · 2만원 (재) 부산문화회관(607-6000)</p>	<p>8</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유니버설발레단 '지젤' 15:00 (대) 9만원 · 7만원 · 4만원 · 2만원 (재) 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1:00 (소) 광복회 부산지부(256-5815)</p>
2	<p>13</p>	<p>14</p>	<p>15</p> <p>2023 이은미 전국투어 콘서트 'NOCTURN' 18:00 (대) 12만1천원 · 11만원 · 9만9천원 (주)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1688-3820)</p>
9	<p>20</p>	<p>21</p>	<p>22</p> <p>뮤지컬 '민짜미_사랑해요 엄마' 11:00, 14:00, 16:30 (대) 전석 6만6천원/DS뮤지컬컴퍼니(1577-4868)</p>
6	<p>27</p>	<p>28</p> <p>STAND UP 20:00 (대) 메테오(주)(010-8496-0510)</p>	<p>29</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여 확인바랍니다.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이제 정말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건가?!

홍동식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늘 그랬듯이 새로운 봄이다. 새롭게 봄꽃도 만개하고, 새로운 일이 나날이 그득하다.

인류사에서 예술의 새로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을 꼽아보라면 무엇보다 먼저 르네상스의 발현이다. 르네상스는 14세기 유럽 전 지역에서 일어난 예술과 문화 혁신 운동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회귀를 외치며 인간과 신의 모습은 동등한 모습이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 예술의 가장 큰 격변이라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 그 다음의 큰 새로움은 20세기 초에 다 각도로 등장한 전위 예술, 즉 아방가르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철학적 가치관과 미학적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롭고 생똥맞은 등장으로 다각도로써 탐미주의적 사고, 그리고 난해한 프랑스 근대철학과 예술 사조의 격조를 위한 부합도 새롭게 따라온다.

아마도 1950년대 전후의 활동으로 인간의 예술적 사고는 더욱 진화하며 예술성 강조에 따른 인간의 스타성이 중시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후 시대는 너무나도 다양한 예술적 갈망과 스타일의 구축, 표현을 위한 온갖 실험으로 정말 태양 아래 새로운 창조는 없다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뜨거웠던 예술의 논쟁이 가득한 포스트모던이라는 말도 요즘에는 심드렁한 느낌이며,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해 왔듯 예술도 새로움과 자극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AI 컴퓨터가 등장하였다. 그냥 시대를 통한 기술의 발전이라 여기며 이세돌과의 바둑 시합을 흥미진진하게 시청하며 정말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우수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학습 컴퓨팅을 우리에게 각인하였다. AI 컴퓨터의 활약은 인류가 예수 탄생 이후 이천년을 지나고 수 백년이 더 지나는 동안의 어두웠던 중세시대(예술의 암흑기)를 거쳐 당면하는 르네상스시대 만큼의 예술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사건이 되리라고 필자는 직감한다. 올 봄은 Chat GTP라는 AI의 등장이 벚꽃보다도 화두가 되는 것 같다.

아래의 물음을 직접 챗GTP에게 던져 보았다.

부산의 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챗GTP 즉답이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 디자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아래에 제시하겠습니다.

1. 브랜딩 디자인 :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딩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부산시는 현재 새로운 브랜딩 작업 중...)

2. 건축물 디자인 : 도시에 새로운 건축물이 생길 때, 그것이 도시 전체의 미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공공 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부산의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지역에 더 많이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해변가의 고급 아파트가 높아지는 이유일까?)

3.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 : 부산의 문화, 음식, 관광명소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매력을 강조하고, 국내외에서 더 많은 방문객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직감한 놀라운 AI)

4. 시설물 디자인 : 공원, 광장, 도로, 보행자 공간 등의 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투자 독려?)

5. 시각적 통합 : 부산의 각 구역에 따른 다양한 문화와 특징을 시각적으로 통합하여 도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시 부산시는 디자인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AI의 놀라운 결정?) 따라서, 디자인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도시의 이미지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상적으로 여겨지는 즉답이지만 전문 디자인 지식과 사회



<중앙일보 기사> "선덕여왕, 아르누보 스타일로" ... 40초 만에 '작품' 만들어낸 AI

과학적 사고를 가진, 부산에서 거주하는 지식인이 제시한 답변처럼 여겨진다. AI의 놀라움 중 하나는 컴퓨터가 모아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절의 우려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계와 대학가에는 학생들이 진행하는 리포트와 연구논문의 표절을 찾아내기가 어렵기에 꼭 AI의 활용 시 표기해야 함을 규약으로까지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발견한 기사 중에서 신라시대 선덕여왕의 모습을 아르누보 화가 알폰스 무하 스타일로 그려달라는 질문을 AI 컴퓨터의 일종인 인공지능시스템 미드저니(Midjourney)에게 명령하여 40초 만에 그린 그림이 화두가 되었다. 1900년대 활약한 체코의 화가인 알폰스 무하가 선덕여왕을 알현한 적은 없었겠지만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짐에 새롭고도 놀라웠다. 이젠 AI가 아티스트를 위한 그림을 단순히 그려냄이 아니라 그림 스타일을 구축하는 작업 또한 쉽게 대행해 줄 수 있음도 직감한다. 예술 행위는 인간의 감성과 지식으로 행해진다는 단순한 진리가 불식되고 어떤 새로운 것이 태양 아래 다시 등장할 것인지 사뭇 기대된다. 책상 앞의 AI에게 외쳐본다.

아리야! 가장 신나는 새로운 노래를 지금 틀어줘~

.....



브람스가 사랑한
200년 전통의 독일 명문 오케스트라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Bremen Philharmonic

4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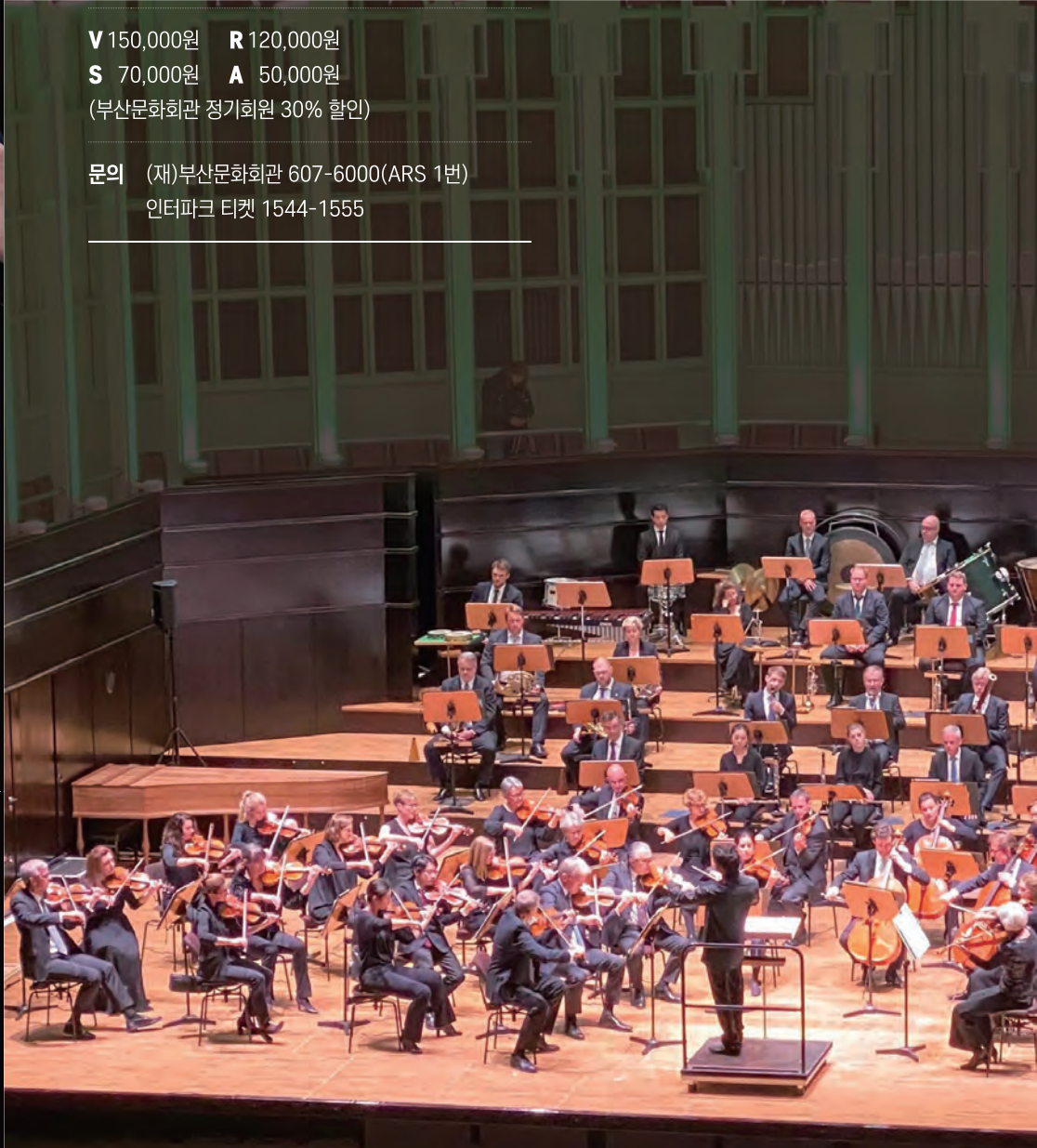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Program

브람스
'대학 축전' 서곡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제4번



r
moniker



양지은



김민준



한독 수교 140주년이 되는 2023년, 200년 전통의 독일 명문 오케스트라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브레멘 필)가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그림형제가 쓴 동화 ‘브레멘 음악대’로 친숙한 도시 브레멘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제2의 도시인 함부르크와 더불어 독일 전역에 단 3개만 존재하는 도시 형태의 주(州)로, 과거 한자동맹 시절부터 무역 허브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오면서 독립된 주의 자격을 유지해왔다. 브레멘 필의 역사는 브레멘의 운송업이 산업혁명과 시너지를 내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인 18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레멘 대성당 오르간 연주자였던 빌헬름 프리드리히 림이 창단한 ‘브레멘 콘서트 오케스트라(Bremer Concert-Orchester)’와 1825년 설립된 브레멘의 ‘프라이빗 콘서트 소사이어티’에 의해 창설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Philharmonisches Orchester)’를 전신으로 하는데, 1933년 주립 오케스트라로 승격되면서 브레멘 주립 오케스트라(Bremer Philharmonisches Staatsorchester)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지금의 이름인 브레멘 필(Bremer Philharmoniker)은 지난 2002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제2의 카라얀, 마르코 레토나

브레멘 필은 2018/19 시즌부터 ‘카라얀이 살아 돌아왔다’는 최고의 평을 듣는 지휘자 마르코 레토나가 수석지

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마르코 레토나는 그의 모국인 슬로베니아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1996년~2002년)를 거쳐 스위스 바젤 심포니(2003년~2006년), 호주 태즈메이니아 심포니(2012년~2020년)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했다. 2017년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의 첫 내한 당시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22년 열린 ‘교향악축제’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객원지휘하여 호평을 받았다. 마르코 레토나는 그동안 교향곡과 오페라 모두에서 다양한 스케일과 레퍼토리로 명성을 얻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오고 있다.

브람스가 지휘한 악단

브레멘 필은 ‘브람스가 사랑한 악단’, ‘브람스가 지휘한 악단’으로 유명하다. 브람스가 1868년 발표한 세기의 대작 ‘독일 레퀴엠’을 처음 연주한 단체도 브레멘 필이다. 브람스와 브레멘 필의 유대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브레멘 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브람스의 작품이 종종 연주되곤 한다. 이번 내한공연의 프로그램 역시 ‘All Brahms’.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브람스가 남긴 유머러스함과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대학 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전반부에서는 한국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솔리스트 임지영과 문태국이 연주하는 ‘이중 협



주곡'이 이어진다. 기교적으로 난곡에 속해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특히 두 협연자의 대화하듯, 때로는 충돌하듯 주고받는 듯한 연주가 감상의 가장 큰 포인트이다. '이중 협주곡'은 브람스의 오랜 절친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과 첼리스트 로베르트 하우스만을 위한 작품으로, 브람스가 요아힘의 이혼으로 인해 서먹해진 상황에서 화해의 뜻을 전하기 위한 선물로 작곡하여 '화해의 협주곡'이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필생의 역작으로 꼽히는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으로, '독일 레퀴엠'을 초연했던 오케스트라답게 브람스 특유의 묵직하고 비장미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한국인 최초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클래식의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첼리스트 문태국의 연주로 관객들에게 브람스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지난 2015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20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한 임지영은 당시 놀라운 집중력, 대담하면서도 안정된 연주, 단련된 테크닉 등 쟁쟁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만 14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이래 일찍이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국내외 관객과 만나온 임지영은 2015년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의 '금호음악인상', 한국연론인연합회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016년 대원문화재단의 '대원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에 클래식 연주자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며 다채롭고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온 임지영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았던 지난 2020년, 바흐와 이차이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라는 대장정에 도전했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 '세계 2050'을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커리어를 구축하고 있다. 임지영은 올해 연세대학교 관현악과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면서 앞으로는 후진 양성에도 힘써나갈 예정이다.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첼리스트

만 4세에 첼로를 접한 첼리스트 문태국은 2006년 제 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우승을 거쳐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우승하며 혜성같이 등장했다. 2016년 세계적인 권위의 야노스 슈타커 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는 4위라는 한국 첼리스트 역대 최고 성적을 남기는 등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첼리스트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문태국은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 유럽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으며, 2019년까지는 앙상블 디토의 멤버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 2022년 롯데콘서트홀 인하우스 아티스트로 활동했으며, 2015년 제2회 SK케미칼 그리움(Grium) 아티스트 상, 제51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했다.



제3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장 오지탐험가 도용복의 봄의 정원으로 초대

정두환 본지 편집위원, 문화유목집단동행 예술감독

우리네 삶은 타인에게 감동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인정받으며 살기를 희망한다. 타인에게 감동을 전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탐험가도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오지를 탐험하는 일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일상의 평범함을 넘어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근본적 삶을 확인하기 위함일 것이다.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힘, 그 힘이 다시금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오지탐험가의 힘이 아닐까!

오지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인간애를 느끼고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체험한 도용복 사라토가 회장이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오지탐험가, 명강사, 작가, 사진가, 부산국제합창제 조직위원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도용복 회장을 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라운지에서 만났다.

정두환(이하 정) _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며 소감은 어떠신지요?

도용복(이하 도) _ 벅찬 감정과 더불어 인생에서 부산문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술은 영혼을 맑게 만드는데, 노후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정 _ 예술이 영혼을 맑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이 회장님께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도 _ 꽃의 향기는 자연이 만듭니다. 인간의 향기는 문화예술이 만듭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돈으로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지요. 예술 행위가 절정에 다다를 때 느끼는 전율은 함께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좋은 사람들과 문화를 나누고 같이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정 1대 최수기 회장, 2대 변원탄 회장에 이어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 저는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예술을 통해 환희와 향기를 간직하며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벅찬 감동의 삶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전 부산시민이 부산문화회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 예술의 봄, 봄의 정원으로 올 수 있는 문화예술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봄의 정원, 예술을 봄의 정원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참 멋지십니다.

도 ‘봄의 정원’의 원동력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먼저 준비하고 먼저 찾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1부 인생은 사업이었고, 2부 인생은 음악이었으며, 지금 3부 인생에서는 영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였듯이 문화예술은 영혼을 맑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의 3부 인생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우리 사회에 맑음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가장 먼저 티켓을 구매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맑게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시작이니깐요.

우리에게는 어려웠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 만 있는 UN모지는 지난 전쟁의 아픔이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전쟁에 대한 평화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부산이 이르면 대한민국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르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6.25 참전 22개국이 만든 평화,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다시금 우뚝서야 합니다. 특히, 평화의 상징인 이곳에서 세계를 향하여 한국인의 문화예술의 맑은 정신을 전파하여야 하며, 그 일에 먼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용복 회장은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불경일사 부장일지(不經一事 不長一智)’, ‘경험해야 배운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다. 직접 발로 걷고, 뛰어 몸으로 체득한 진정한 배움을

강조한다. 이는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술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이라는 강의를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예술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실천하는 도용복 회장이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도 저는 다른 사람에게 꿈과 감동을 주고 싶어요. 제가 젊은 학생을 상대로 강의할 때면 롤스로이스를 타고 갑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오픈카입니다. 귀한 차죠. 이 차를 타고 강의를 가서 열심히 들은 학생에게 한 번 태워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런 차를 타라고요. 젊은이들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동과 희망, 가급적이면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삶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것을 다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누어 다른 이들과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직접 경험하는 것은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장이 되었으니 후원회의 본질에 맞게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용복 회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계단 돌 틈에 핀 제비꽃을 보았다. 한 뼘도 되지 않는 흙을 기반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운 제비꽃,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봄이다. 봄의 정원은 자연이 그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연이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가꾸어야 가능하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자연의 위대한 작품을 끊임없이 가꾸고 키울 때 봄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소망을 담고 열성적으로 가꿀 때 가능한 ‘봄의 정원’, 도용복 회장이 이야기하는 봄의 정원을 우리 모두의 정원으로 다함께 만들어가자.

‘불경일사 부장일지(不經一事 不長一智)’, 문화예술을 경험해야 배운다. 그래야 좋은 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말없이 뒤에서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후원회의 본질에 맞게끔 몸으로 실천하는 도용복 회장이 펼쳐갈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봄의 정원’을 기대한다.

인류 4대문명 중 하나인 황하 문명을 시작으로 동북아시아에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비슷한 신화가 형성되어 왔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의 특성상 지역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유사했다. 그러다 새로운 고대 국가가 더 많은 지역에 생기면서, 지역별로 고유한 신화가 형성되기도 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체계적인 법령과 제도가 형성된 국가인 삼국에도 각기 다른 건국신화가 형성되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국가의 형태를 가진 고구려의 시조로 동명성왕(東明聖王)인 고주몽에 대한 신화도 전해진다.

고주몽의 신화

옛 부여지역에서 강의 신 하백의 첫째 딸 유화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를 만나게 된다. 아름다운 유화에게 반한 해모수는 결혼을 약속하며 유혹했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지만, 유화의 아버지, 하백에게 들켜고 만다. 하백이 화를 내며 딸을 다그치자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해모수는 유화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도망을 가 버렸다. 허락받지 않은 사랑을 한 유화는 쫓겨났다.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떠돌고 있던 유화의 모습을 부여왕인 금와가 보게 되고, 사정을 들은 후 궁으로 데려왔다. 유화는 궁에서 얼마 후 커다란 알을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알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비록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하백의 아름다운 딸인 유화를 금와는 비로 맞이했다. 그렇게 주몽 역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우리의 신화를 담은 그림 3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1 <수렵도>, 무용총(중국 지린성 위치), 5세기 경

궁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고 특히 활쏘기를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자를 의미했던 '주몽'이란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왕자들이 시기하고 견제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결국 주몽은 후일을 도모하며, 임신한 부인과 어머니를 두고 새로운 땅으로 향했다. 그리고 부여를 떠난 후 만나게 된 소서노와 함께 고구려를 세웠다. 이 이야기에서 고주몽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므로 신에 버금가는 존재이다. 게다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점은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알린다. 그렇기에 주몽이라 불릴 만큼 활쏘기에 뛰어날 수 있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초월적 존재인 동명성왕이 되었다는 개연성

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활쏘기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항아를 부인으로 두었던 신궁인 예가 인간을 위해서 아홉 해를 쏘고 영생을 포기한 영웅으로 추대된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 활쏘기는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동과 만주지역은 유목민이 많으며 수렵을 중시하던 문화였다. 그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구려 고분벽화 중 <수렵도>^[도판 1]에도 잘 나타난다. 산속을 여러 남성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있다. 깃털을 꽂은 관모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고구려 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말 위에서 다양한 자세를 하면서 활을 쏜다. 실제 고구려인들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던 민족으로 기록되고 있다. 고주몽의 후예여서인지 혹은, 활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자부심 덕분인 지는 몰라도 고구려의 영웅 주몽은 명사수였다.

비록 고주몽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유물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광개토대왕비^[도판 2]에 보면,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의 탄생과 업적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이 비문이 세워진 5세기에 고구려에 대한 국력이 강해진 만큼 위대함을 동명성왕의 신성함으로 더욱 빛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가 세워지고 얼마 뒤, 고주몽의 둘째 부인인 소서노의 두 아들 중 온조는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 새로운 나라인 백제를 세웠다. 그래서 아쉽게도 백제의 건국 시조에게는 별다른 신화는 없다. 오히려 두 나라를 세운 데에 공을 세운 여걸 소서노의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



2 광개토대왕비, 414년, 높이 6.39m, 중국 지린성 위치

신라의 김알지 설화

신라의 경우에는 지도자였던 박혁거세, 석탈해 그리고 김알지에 대한 탄생설화가 각각 있다. 그리고 신라 옆의 또 다른 부족국가였던 가야 중 김해가야의 왕 김수로왕와 그의 왕비 허황옥에 대한 신화도 전해진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역시 고주몽처럼 알에서 태어난 난생설화(卵生說話)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인간이라면 어미의 배에서 열두달을 지내다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연유와 장소, 방식으로 알에서 태어났다. 고주몽은 어머니 유화가 알을 낳은 것이지만, 박혁거세는 흰말의 울음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석탈해는 배에서 발견된 껍질 속에서, 김수로왕은 하늘에서 구지봉으로 내려온 알이었다. 그리고 김알지는 흰 닭이 우는 계림^[도판 3] 숲속의 황금 껍질에 담긴 알에서 태어났다.



3

3 경주 계림



4

4 삼국유사 범어사 소장본,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5

5 <천마도>, 5-6세기 경, 경주 천마총 출토, 75×53cm, 국보 제207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난생설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반도 고대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신화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는 탄생의 방법도 범상치 않은 듯하다. 이러한 신화들 역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문헌^[도판 4]을 통해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고도 하지만, 관련해서 이미지로 표현된 유물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박혁거세가 태어날 때 옆에서 울었다는 흰 말과 <천마도>^[도판 5]를 연결해보는 시도를 해 볼 뿐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1656년 효종 대에 그려진 독특한 그림이 남아있다. 신라의 왕이 된 김알지(金闕智)의 탄생설화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사대부 화가인 조속(趙潑, 1595~1668)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도판 6] 조속은 화원화가 아니었음에도 숙달된 기법이 필요한 청록산수로 화면을 표현하고 그 속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과 닭, 금궤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은 옛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로 분류된다. 즉 김알지를 신적 대상으로 보고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훈이나 메시지를 표현하는 이야기를 가진 그림의 역할을 한다. 그림 속 장면은 김알지가 태어난 알이 들어있던 금궤가 발견된 시점을 보여준다.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이 정체를 알고자 하는



6 조속, <김알지탄생설화>, 1656년, 비단에 채색, 132.4×48.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탈해왕의 명을 받아 계림으로 들어간 호공(瓠公)과 시종이 우는 흰 닭 위의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는 금궤를 바라보고 있다. 화면 위쪽에 보면, 김익희(金益熙, 1610~1656)가 해서체로 글을 적었다.

“이 분은 신라 경순왕 김부(金傅)의 시조로서 금궤 안에서 그를 얻었기에 성을 김씨라 하였다. 금궤는 나무 위에 걸려 있고, 그 아래 흰 닭이 울고 있어서 보고 가져와 보니 금궤 안에는 남자 아이가 있는데, 석씨의 뒤를 이어서 신라의 임금이었다. 그의 후손인 경순왕이 고려에 들어오매 순순히 온 것을 가상히 여겨 경순

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올해 다음 해 봄 삼국사기를 보고 그리라고 명령하였다. 이조 판서 김익희가 교시를 받들어 쓰고, 장령 조속이 교시를 받들어 그렸다.”

이 글을 쓴 김익희는 문신으로 그림에 글을 쓴 시기는 그가 이조판서로 있던 1656년쯤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왕의 지시는 1636년 인조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니, 실제로는 같은 해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미뤄지다가, 20여 년 후에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속이 사대부였음에도 왕의 명령을 받아 청록산수로 그렸다는 점은 특이하다. 그렇다면 하필 김알지에 대한 설화를 그리라고 왕이 지시했는지에 대해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명을 꺾고 새롭게 등장한 청에 의한 압박이 계속되는 시점이었고, 민족적인 자긍심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속 글에서 언급한 듯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에 나라를 넘겨주었던 때를 상기하며 고려가 굳건한 나라로 섰을 때처럼 조선의 불안정한 상황도 잘 이기길 바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의 신화, 우리의 미술

세계의 여러 문명 권에는 다양한 신과 신화가 전해져온다. 글이 없던 시절부터 신화는 구전되었고 문자가 형성되면서 글로 정리되기도 했다. 신화 속 신들은 여전히 초월적 존재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림, 문학과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만 서양미술사에서 르네상스 이후로 꾸준히 표현되어 온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달리, 우리의 신화를 예술 속에서 찾기가 쉽다. 그저 머리맡에서 들던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녹아있을 뿐이다. 그래도 간혹 우연히 마주친 유물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떠올릴 만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 상상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화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일상을 담은 스토리 사진이나, 어느 관광지에서 닿게 된 신화적 장소에서 찍은 동영상에서라도 말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만화나 책, 영화, 드라마에서도, 또 다른 우리의 미술로도 우리의 신화가 더욱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전통과 혁신

파리 오페라

OPERA NATIONAL DE PARIS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서어지 대표

3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파리 오페라(Opera National de Paris)는 가르니에 궁전(Palais Garnier)과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Opéra Bastille), 두 극장에서의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레퍼토리의 프로그램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럽의 문화수도 파리의 가르니에 궁전은 낮 시간 동안 입장료를 받고 방문객에게 개방되기도 한다.

매년 400회 이상의 커튼이 열리는 파리 오페라는 오페라를 넘어 발레와 콘서트, 그리고 젊은 청중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 파리 오페라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와 발레가 가진 고전의 훌륭한 문화유산의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현대 작품 및 창작 공연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연간 900,000명의 관객이 찾고 있으며, 동시에 여전히 새로운 관객을 맞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르니에 궁전 *Palais Garnier*

1875년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Charles Garnier)가 설계한 가르니에 궁전(Palais Garnier)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있는 오페라 극장이다. 정식 명칭이 궁전이라 불릴 만큼 내·외관이 화려하며 특히 2층 라운지는 실제 베르사이유 궁전 내부 못지 않게 화려하다. 현재는 바로크 오페라나 전통 발레공연이 주로 무대에 올려지면서, 파리 오페라의 메인은 바스티

유 오페라에 내어주었지만, 가르니에 궁전의 상징적인 의미는 남다르다.

1964년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 천장을 그린 이탈리아식 오페라 극장으로, 2,054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480,000명, 파리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1923년부터는 역사적 기념물로 프랑스 정부가 지정하기도 했다.

바스티유 오페라 *Opéra Bastille*

1989년 7월 13일에 개관한 오페라 바스티유는 우루과이 태생의 캐나다인 건축가 카를로스 오토(Carlos Ott)의 작품이다. 원통 형의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건축물의 파사드를 메우고 있는 소재는 건물 내부와 외부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균일한 음향을 갖춘 2,713개의 좌석, 독특한 무대 장비, 세트, 의상과 소품을 위한 통합 작업장, 작업 및 리허설 룸을 갖춘 바스티유 오페라(Opéra Bastille)는 현대적인 대형 오페라 극장이다. 바스티유 내부는 최첨단 기술과 크리에이티브한 노하우를 집약, 수 백명의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대를 위해서 뛰고 있다. 근사한 쇼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한 이 공간은 무대 기술자, 조각가 및 화가, 재봉사 및 미용사가 가수, 무용수 및 음악가와 함께 일하는 실제 도시와도 같다.

구스타보 두다멜 *Gustavo Dudamel*

음악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의 이름을 처음 알린 건 예술교육이었으며, 소외된 지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오페라의 경력만 놓고 보면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에서 ‘카르멘(Carmen)’, ‘오텔로(Otello)’ 및 ‘탄호이저(Tannhäuser)’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언어·작곡가의 레퍼토리로, 로스앤젤레스 오페라, 밀라노의 라스칼라, 비엔나 및 베를린 슈타츠오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같은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에서 지난 10여년간 무수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



필하모니 드 파리

히 많은 오페라 공연을 지휘했다. 그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예술 및 음악감독이자 파리 오페라와 시몬 볼리바르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템아(El Sistema)’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2007년에 ‘YOLA(Youth Orchestra Los Angeles)’를 설립하여 이미 1,500명의 젊은이들에게 무료 악기, 집중적인 음악 및 지휘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그는 2012년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과 예술에 대한 접근 확대’를 목표로 두다멜 재단을 설립했으며, 여러 그래미상을 수상한 그의 음반은 이미 65장에 다다른다.

구스타보 두다멜은 1981년 베네수엘라 바르키시메토에서 태어났다. 1996년 18세의 나이로 그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었고, 2004년 제1회 밤베르그 심포닉의 구스타프 말러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스웨덴의 예테보리 심포니(Gothenburg Symphony)에서 시작한 그의 음악 커리어는 이후 2009년에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및 예술감독으로, 2021년에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까지 맡게 되었다. 그리

고 최근에는 뉴욕 필하모닉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파리 오페라는 이렇듯 젊은 음악감독의 새 바람으로 고전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사임하기도 했지만 1977년생의 파리 발레단의 예술감독 벤자민 밀피에(Benjamin Millepie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전통과 혁신 두 가지를 섭렵하고자 하는 파리 오페라의 열정이다.

필하모니 드 파리 *Philharmonie de Paris*

파리 북동부 라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 인근에 위치한 필하모니 드 파리(Philharmonie de Paris)는 8년의 공사를 끝내고, 2015년 1월 개관했다. 세계 정상급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의 설계안이 채택된 순간부터 개관까지, 프랑스 국민은 물론 전세계 음악팬들, 현대건축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던 건물이다.

프랑스 음악계에는 꾸준히 콘서트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989년 세워진 바스티유 오페라 이후 파리를 대표할 만한 콘서트홀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제리제 근처에 위치한 살 플레이엘 공연장이 클래식 연주홀의 역할을 해왔으나 협소한 공간, 부족한 음향시설로 한계가 있

었다. 바로 필하모니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다. 산고 끝에 8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개관했다.

2008년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고 파리 아랍문화원, 아부다비 루브르, 삼성미술관 리움 현대미술관 등을 설계한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했다. 52m 높이의 미래지향적 우주선 모양의 건축물이다. 장 누벨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음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실용적 건축물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필하모니는 총 2,4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스탠딩 공연장으로 변경 시 3,600명까지 수용가능해진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부터 가장 먼 좌석이 불과 32m 떨어져 있어 공연자와 관객을 가깝게 접근시킨 것이 여타 공연장과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이다. 덕분에 저렴한 가격의 자리도 최대한의 현장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음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도요타 야스히사와 뉴질랜드의 해럴드 마셜 등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필하모니 드 파리에서는 클래식 음악 외의 공연도 열린다. 재즈, 록, 랩, 세계음악, 현대음악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콘서트를 개최한다. 각 음악 장르에 따라 홀의 모든 세팅이 변경된다. 음향시설은 물론, 좌석 배치까지 달라진다. 주중에는 클래식 콘서트를 열지만 주말에는 대중적인 장르의 음

악 콘서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클래식 음악도 28세 이하 청소년은 미리 공연을 예약할 시 일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8유로(한화 약 1만 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필하모니가 지어진 이곳은 파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파리 북동부 교외의 공원지구다. 이곳에 지어진 취지는 이 지역을 중요한 문화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벌써 필하모니를 기준으로 주변에 이미 많은 팝, 록, 재즈 공연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클래식 공연장이 건립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필하모니 드 파리 건립에 프랑스 국비 45%, 파리 시비 45%, 그리고 일드프랑스 지방세 10%의 비율로 세금이 투자됐다. 이는 누구나 이곳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프랑스 파리의 문화시설 건립은 최근 부산이 준비하고 있는 공연장에 많은 귀감이 된다. 물론 유럽의 문화수도 파리와 부산은 평행선상에 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바스티유와 비슷한 시기인 1988년 개관한 부산문화회관, 35년만에 새로운 요구에 의해 착공중인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콘서트홀 격인 부산국제아트센터가 있다. 이에 2022년 1월부터 이어온 오페라축제와 오페라극장 연재 글에 이어 5월호부터는 베를린 필하모니, 빈 뮤직페라인, 뉴욕 카네기홀,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등 세계적인 콘서트홀에 관한 소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1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 2 샬라이 그린 가르니에 홀 천장 3 필하모니 드 파리 객석

GP에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박나무 자유기고가

어떨 때는 침묵이 최고의 연설일 수 있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요함 속에서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양자간에 제대로 소통하는 시간이 아닐까. 또 어떨 때는 단식이 최고의 섭식일 수도 있다. 과한 영양 공급을 멈추고, 축적된 양분을 고루 나누며 장기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면서 건강 회복을 꾀하기도 한다. 음악에서는 어떨까? 실 새 없이 이어지는 연주로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제히 악기들이 소리를 내지 않는 순간, 오로지 관중들의 숨소리만 가득한 그 공연장의 긴장된 공기는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명연이다. 비어있을 때 채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간이라는 존재가 주는 힘이다. 우리네 인생도 멈추고 비우고 쉬어가는 시간을 잘 만들어야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계네랄파우제. 오늘 소개할 공간은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 Generalpause, 합주곡이나 합창곡에서, 모든 연주를 갑자기 멈추는 긴 쉼표의 독일어 이름이다. GP로 줄여쓰기도 하는 이 쉼표는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 현대인들이 힘든 일상 중에서 편안히 쉬어가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것은 비단 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나 기획자에게도 어떤 의미로든 자유로움을 주고 싶다고 하니, 계네랄파우제는 만인에게 쉼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가보다. 매주 2~3회 클래식과 재즈 혹은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된다.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에는 어김 없이 공연이 열리고 있다. 어쩌다 다른 날 다른 시간에도 공연이 있으니, 시간표를 잘 살필 일이다.

1시간 남짓한 공연은 관람료가 2만 원인데, 음료와 함께 이 표가 붙은 지정석이 제공된다. 어떤 특별한 날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감동을 주고 싶을 때 이 곳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 예매를 서두른다면 정상급의 연주자들이 내 손이 닿을 거리에서 최고의 연주를 들려줄 것이며, 운이 좋다면 앵콜이 이어져 자리를 못 뜨는 수도 있다. 강혜인퀸텟, 이달현트리오, 서민진트리오, 아모르양상블, 피오프라블락재즈텟, 최은아트리오, 최소진퀸텟, 허쉬밴드, 홍영호퀸텟 등이 3월에 펼쳐진 향연의 주인공들이다. 게네랄파우제에는 매우 특별한 멤버십이 있다. 10만 원의 후원금을 내면 석 달간의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3월에만 12차례의 공연이 있었으니, 석 달간 적어도 30회의 공연은 있다는 가정이라면 1회 공연에 3천 원 남짓? 음료를 받기가 미안할 지경이다. 광복로 변화가에서 이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착하고 속없이 이 공간을 운영하는 이들은 김다운&김지완 부부. 교회오빠와 성가대연주자로 만나 사랑을 키운 두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데 의기투합해 게네랄파우제의 문을 열게 되었고, 만 5년이 넘도록 공간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운 대표는 주로 게네랄

파우제에 머물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데 힘쓰는 편이고, 김지완 대표는 병원응급실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며 퇴근후에 “대표를 보조하는 일”에 힘쓴다고 한다. 이젠 아 이들이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시간의 여유를 조금 찾게 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돈이 되지 않는 공간에 청춘을 바치고 있는 두 사람의 바람은 그저 이 공간이 “지속됐으면” 하는 것이다.

공연프로그램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 이제 카페 운영만 잘되면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출 수 있겠다고 한다. 그 ‘카페 운영만’ 잘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다. 우선은 멤버십에 가입해야지. 연주자에게도 기획자에게도 관람자에게도 모두 좋은 이런 좋은 카드는 얼른 사야겠다. 게네랄파우제는 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거친 연주를 이어가기 위해 숨을 모아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 공간도 쾌적하고 커피 맛도 좋은, 무엇보다 클래식연주와 재즈공연의 최고 맛집인 게네랄파우제에서 에너지를 잘 충전하시길 바란다.



문의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blog.naver.com/general_pause, instagram.com/general_pause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의 명암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예술의전당이 올해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전국에 ‘예술의전당’이란 이름을 붙인 다수의 문예회관을 보면 예술의전당이 한국 공연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의전당은 LG아트센터 등 경쟁 공연장이나 공연예술축제가 별로 없던 2000년대 전반까진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정체성과 방향성을 놓고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올해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 대한 향수와 현재의 빈약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술의전당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전두환 정권이 외국에 내세울 만한 문화시설로 건립 계획이 세워졌다. 1984년 착공 이후 공사가 늦어지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에 야 서예박물관과 음악당이 먼저 문을 연 뒤 1990년 한가람미술관과 예술자료관, 1992년 야외무대 그리고 1993년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며 모든 공사가 끝났다. 야외무대의 경우 2009년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의 국립 예술단체 연습실 건물이 세워졌다. 한국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음악당과 최초의 오페라하우스인 오페라극장을 가진 예술의전당은 개관 직후부터 한국 공연계의 핵심공간이 됐다. 또한, 극장 경영과 예술 경영의 시발점이 됐다.

예술의전당 음악당은 개관 당시엔 대형 오케스트라와 스타 연주자들을 위한 2,523석의 콘서트홀과 독주회용의 400석의 리사이틀홀로 이뤄져 있다가 2011년 600석 규모의 실내악 전용 IBK챔버홀이 더해

졌다. 참고로 클래식계 사정에 익숙지 않은 일반 대중의 경우 음악당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예술의전당 기획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연간 90% 정도는 민간 기획사와 국내 오케스트라 등의 대관으로 채워진다.

물론 굵직한 자체 기획 프로그램도 있다. 1989년부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교향악 축제’는 대표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교향악단 창단 붐을 주도하며 클래식 발전에 기여했다. 예술의전당은 또 역량 있는 국내 음악인 및 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트렌드를 이끌었다. 특히 부천필과 함께 한 1999년~2003년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와 2014년~2016년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선보이며 국내에 말러와 브루크너 열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청소년 음악회와 11시 콘서트는 전국 공연장으로 확산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는 2,340석의 오페라하우스, 675석의 토월극장, 255석~612석의 가변형 자유소극장으로 이뤄져 있다. 토월극장의 경우 2013년 CJ그룹의 후원으로 리노베이션을 한 뒤 1,004석의 CJ토월극장으로 바뀌었다. 오페라하우스라고는 하지만 해외와 달리 전속 오페라단과 발레단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개관 초기엔 해외 유명 단체의 초청공연이 많았지만, 극장 인력들의 경험이 축적되자 자체 제작 또는 민간과 공동 제작에 나서게 됐다.

예술의전당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 3개 단체가 1999년 국립극장 소속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듬해,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옮겨오면서부터다. 이후 국립발레단과 ‘호두까기 인형’을 매년 공동기획 하는 등 이들 상주단체와의 협업



1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공연(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지휘, KBS교향악단 연주) 2 바이올리니스트 정명화&피아니스트 케빈 커너 3 예술의전당 상주단체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이 불가피해졌다. 예술의전당이 2003년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기획 역량, 해외 네트워크, 상주 국립예술단체의 성장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다만 자체 초청 및 제작 공연에 민간과 공동주최하는 뮤지컬까지 포함하는 불완전한 방식인데다 2003/2004시즌과 2004/2005시즌의 두 번으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에 2006년부터 방송발전기금 지원 중단, 핵심 인력들의 쫓겨나, 2007년 말 오페라극장 화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예술의전당은 급격히 위축됐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기능 재조정 과정에서 국립예술단체는 작품 제작에 방점이 찍힌 반면 예술의전당은 대관이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예술의전당이 그나마 제작을 다시 시작한 것은 문체부 차관 출신인 모철민 사장이 취임해 2013년 설립 25주년(콘서트홀 기준) 기념 명분을 내세운 덕분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고학찬 사장은 예술의전당 역사상 역대 처음으로 연임한 인물이다. 고 사장 시절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영국 국립극장의 공연 영상화 사업인 '메트 라이브' 'NT 라이브'를 본떠 만든 'SAC 온 스크린'이 도입됐다. 다만 메트나 NT가 이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도 올리는 것과 달리 'SAC 온 스크린'은 문화 소외층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만들어

진 만큼 무료다.

그런데,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의 제작 역량은 점점 커졌지만 전용극장 부재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의 제작 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들 단체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국립오페라극장을 짓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체부가 지난 2013년 국립오페라단부터 예술의전당 편입을 추진했다가 오페라계의 반대로 접으면서 통합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예술의전당의 재정을 보면 연간 예산 450~500억 원 가운데 20~30%만 국고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는 대관, 주차장과 식당 등 부대사업으로 충당한다. 예술의전당과 흔히 비교되는 해외 오페라하우스들이 대체로 국고 지원이 전체 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된다. 매년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정부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술의전당이 공공성을 잃었다는 민간의 비판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취임한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이 순수 예술 전용극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메인 대극장인 오페라극장의 경우 여름-겨울철 뮤지컬 장기공연에 대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2024년부터 오페라-발레 프로그램을 집중 기획-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예술의전당 사장이 정권 교체 이후 트로피 같은 자리가 된 지 오래여서 운영 방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2023.5.3.수 ~ 5.28.일

평일 단체공연 공휴일·주말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ARS 1번 **티켓** 전석 12,000원 **관람연령** 전연령 관람가(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원작 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사/연출 김지용 | 작곡 진소영 | 음악감독 김성복 | 반주 이현주·이소진 | 안무/움직임연출 홍충민 | 무대디자인 황지선
무대제작 진승휘 | 조명디자인 조세현 | 의상디자인 김현진 | 분장디자인 이지원 | 영상감독 이현우 | 무대감독 정순지 | 기획/홍보 백경옥·권미정·박지현
출연배우 이현주·황창가·이현우·김은희·염지선·김은옥·서보기·오희경·채민수·이태성·강승환·우성주·이소희·박미서·서예은·양희진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D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옴	557-3369

E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베토르크



지휘 **김노상**



바이올린 **나승준**

◆ **유연하고 정교한 바톤 테크닉과 정돈된 해석으로 난곡들을 매력처럼 풀어내는 마에스트로 김노상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9회 정기연주회가 4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년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나승준이 협연자로 출연,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연주와 탁월한 음악적 기량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현재 한국 교향악단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는 지휘자 김노상은 1989년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시작으로 인천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을 이끌며 이들 교향악단을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의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다. 특히 인천시립교향악단 재임시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을 4관 편성의 관현악단으로 확대, 슈트라우스, 말러, 스트라빈스키 등 대편성의 새로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한편, 브루크너 교향곡 등을 한국 초연 하면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대전시립교향악단과는 유럽 투어를 통해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음악의 도시 비엔나 무지크 페어라인 골드홀을 비롯하여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뮌헨 헤라클레스홀 등 유럽 최고의 연주회장에서 유럽인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유럽에 한국 교향악단의 수

준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김노상은 표제음악의 정석이라 불리는 ‘핑갈의 동굴’ 서곡과 세계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손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등 독일의 낭만파 작곡가인 멘델스존의 작품과 관현악의 패러다임을 뒤집어엮는 새로운 작품으로 평가받은 헝가리 현대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베토르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베토르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모든 악기들을 독주 악기로 사용하며 협주곡풍으로 작곡한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색채적인 음악에 속한다.

‘바이올린 협주곡의 이브’라 불리며 특유의 서정적이고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는 바이올리니스트 나승준의 연주로 들려준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도독,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전문연주자과정, 자브뤼켄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나승준은 일찍이 이태리 Padova 국제콩쿠르, Don Vincenzo Vitti 국제콩쿠르, Barletta 국제콩쿠르 1위 등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는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악장, 앙상블 토니카, 앙상블 더 브릿지, MEG앙상블, 앙상블 유터피, 트리오 하임 멤버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일 시 4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세 번째 무대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이 4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청중과 소통하고 있는 세계적인 젊은 기타리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최고 권위의 기타 국제 콩쿠르인 ‘빈 기타 국제 콩쿠르’의 2021년, 2022년 우승자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한국음악인 최초 스페인 국왕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한국 기타음악의 거목 기타리스트 장승호가 한 무대에 서며, 월간 객석 편집장을 역임한 콘서트 가이드 국지연의 상세한 해설로 섬세한 기타 선율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프랑스 출신의 캐시 마르탱은 2002년생으로 5세에 기타를 시작, 9세의 나이로 콩쿠르에서 처음 1위에 입상한 후 빈 기타 국제 콩쿠르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프랑스를 주축으로 유럽 각지의 페스티벌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2022년에는 고티에 카뤼송의 ‘프랑스의 여름’ 연주 투어에 함께하고 릴 그랜드 오케스트라와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협연하는 등 고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의 다

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스 출신의 로안나 코조글로우는 2014년 제1회 테살로니키 기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빈 기타 국제 콩쿠르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했으며, ‘Art Campus Delphi 2019’에서의 수상으로 열린 아테네 콘서트홀 연주회를 비롯해 HfMT Koeln의 부퍼탈 테살로니키 콘서트홀(2021), 비엔나포름페스티벌에서의 리사이틀 연주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생 기억될 마법같은 연주’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장승호는 지난 1993년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Rene Bartoli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세고비아, 산사노 콩쿠르 등 7개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연주, 마스터클래스 및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혁신적인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기타로 편곡, 국내 초연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데뷔 40주년 기념 독주회에서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전곡을 초연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 명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비롯해 투리나 ‘세비아나’,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바흐 ‘파르티타 제2번’ 등 다양한 곡을 선사한다.

일 시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Muy bien, 얼씨구 좋다!



◆ **무르익어가는 봄의 흥취를 흥겨운 국악으로 풀어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Muy bien, 얼씨구 좋다!’가 4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 제목인 ‘Muy bien(무이 비엔)’은 스페인어로 ‘매우 좋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추임새인 ‘얼씨구 좋다’와 같은 의미이다. 타 장르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국악 창작곡의 맛과 신명을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단국대학교 교수,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있는 이건석이 객원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부수석 박순자, 청주시립국악단 대금 차석이자 국악양상블 ‘休[hue:]’ 대표 이창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국악전문단체 ‘타로’ 공동대표인 소리꾼 박성희, 가수 신승태가 협연한다.

객원지휘자 이건석은 매년 다른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분야와의 콜라보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을 이수한 대금주자이기도 한 이건석은 그동안 폭넓은 음악적 해석으로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비롯하여 KBS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난계국악단,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처용국악관현악단, 메트로폴리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전통

음악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창작음악 레퍼토리 개발과 신진국악인 양성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으로, 북한의 공훈예술가로 활동했던 작곡가 최성환이 우리의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작곡한, 서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어서는 박순자의 피리 협연으로 피리 독주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상경산·경풍년·염양춘을 주제로 한 피리협주곡 ‘Neo C’(송정 곡)를 들려준다. 누에보 탱고의 거장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아디오소 노니노’, ‘봄(사계 중)’의 일부분을 대금협주곡으로 편곡한 ‘Great Astor’(이유진 편곡)는 대금 이창훈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중앙대학교 국악관현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국악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창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20호 대금정악 전수자로, 제44회 난계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2등, 제4회 남도 전통예술경연대회 기악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따뜻한 세상을 부르는 오늘은’(이지영 작사, 작곡)은 소리꾼 박성희의 노래로 들려주며, 단국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소리꾼이자 TV 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가수 신승태가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창부타령’, ‘사랑불’, ‘희망가’ 등 가요와 민요를 들려준다.

일 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진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부산시립합창단의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가 올해도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지난 2019년 가족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 2021년 뮤지컬칸타타 ‘아! 나의 조국’, 2022년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에 이은 부산시립합창단의 네 번째 뮤지컬 공연이다. 최근 들어 부산시립합창단은 뮤지컬이라는 친숙한 장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는 전 연령층에게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해 공연 매진으로 관람의 기회를 놓친 관객들을 위한 앙코르 무대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옛날 옛적에’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 뮤지컬 외래강사, 기장대청초등학교 소리

모아합창단 지휘자로 활동 중인 김인수의 객원 연출,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2310밴드의 대표 이삼열이 편곡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았으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김소민, 손지우와 클라리네티스트 이소연이 출연하여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첫 곡인 ‘옛날 옛적 먼 옛날에’를 시작으로 ‘꼭꼭 숨어라’, ‘악어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 우리가 즐겨 부르는 동요를 기반으로 편곡된 16곡을 통해 이야기를 끌어간다. 특히 전래동화가 가진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번 무대는 평소 공연장 입장이 어려운 3세 이상 어린이까지 관람이 가능하여 어린이들의 뮤지컬 입문용으로 손색이 없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도 안성맞춤이다.

한편, 본 공연에 앞서 5월 3일과 4일 오전 10:30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어린이집 등 단체관람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 문화예술교육 공연이 펼쳐진다.

일 시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5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3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인문학이 전해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

인문학(人文學)이란 인문(人文)을 다루는 학문이다. 人은 두사람이 기대어 서있는 형상이고 文의 의미는 무늬(紋)이다. 즉 인문은 사람의 무늬, 우리 삶의 모습이다.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관해 우리는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시작은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뉴노멀 대전환 시대에 와 있다. 현 시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질문과 성찰이 아닐까.

(재)부산문화회관은 올 한해 명사초청 아카데미 시리즈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저명 인사의 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강연형 콘서트로,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문학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준다.

4월 22일
(토)

소년범과 정의

호통판사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5월 13일
(토)

기후위기, 내 삶의 위기,
내 사람의 위기

미국방송인 **타일러 라쉬**

6월 9일
(금)

두려움을 넘어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리치엔니 **박세리**

7월 1일
(토)

한국미술의 아이덴티티

미술사학자 **유흥준**

10월 14일
(토)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11월 11일
(토)

백년 인생(백년을 살아보니)

104세 철학자 **김형석**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질의 응답

클래스 참석 전, 명사에게 미리 질문을 남겨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 wow@bscc.or.kr

시 간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4월 22일 강의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호통판사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소년범과 정의



천종호



소프라노 박소영

◆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의 첫 번째 주인공은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된 호통판사 천종호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천종호는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장기간인 8년간 소년재판을 맡아 1만2000여명의 소년범을 재판한 바 있다. 학교 폭력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소년범이 그에게 선처를 호소하자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라고 호통치는 모습이 지난 2013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학교의 눈물’에 방송되면서 ‘호통판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비행청소년에게 호통을 치는 이유로 “비행청소년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았으

일시 _ 4월 22일(토) 오후 3:00
 연주 _ 박소영(소프라노), 김란(피아노)

면 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비행청소년들을 보듬었던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판사가 있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천종호 판사와 함께 이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소년범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강연의 수익금 전액은 지역 청소년회복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박소영이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 왈츠’, 가곡 ‘마중(윤하준 곡)’을 들려준다.

미국방송인 타일러 라쉬
기후위기, 내 삶의 위기, 내 사람의 위기



타일러 라쉬



바이올린 임홍균



첼로 이일세

◆ 아이큐 165, 전 세계 8개 국어를 하는 언어천재로 한국인보다 한국어 말을 더 잘하는 미국인 타일러 라쉬는 지난 2014년 JTBC 방송 ‘비정상회담’에 미국 패널로 출연하며 방송에 데뷔한 후, tvN 방송 ‘뇌섹시대 문제적남자’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워싱턴 DC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와 주미한국대사관 대사실에서 근무하다 한국 유학을 선택, 한국 정부 초청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후 2016년 석사를 취득했다. 타일러는 지난 2016년부터 세계자연기금(WWF)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

일시 _ 5월 13일(토) 오후 3:00
 연주 _ 임홍균(바이올린), 이일세(첼로)

을 알려오고 있다. 2020년에는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화두인 ‘환경’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연과 인간 존재를 연결하는 성찰과 환경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도 타일러는 현대사회 기후위기의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과 첼로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과 첼리스트 이일세가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중 2악장 ‘가보트’와 4악장 ‘칸초네’를 들려준다.

리치언니 박세리 두려움을 넘어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박세리



오보에 고관수

◆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세 번째 주인공으로 여자 골프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명으로 불리는 박세리가 부산을 찾는다. 박세리는 1996년 국내 프로골프에 입문한 뒤 199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진출하여 한국인 최다 25승을 거뒀으며, 현역선수로 활동했던 지난 20년간(1998~2002년) 메이저 대회 4승을 거두는 등 통산 5차례 그랜드 슬램에서 우승했다. 2007년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6 리우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의 한국 여자골프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바즈인터내셔널’이라

일시 _ 6월 9일(금) 오후 3:00
연주 _ 고관수(오보에), 이은정(피아노)

는 회사를 만들어 사회적 기여와 스포츠인 양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리치언니’라는 타이틀로 각종 TV 예능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박세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정신,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그녀의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오보이스트 고관수의 연주로 애니메이션 ‘선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 ‘Reprise’(히사이시 조 곡)를 들려준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한국미술의 아이덴티티



유홍준



첼로 홍승아

◆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인문교양서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문화재 답사여행의 돌풍을 일으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로 유명하다. 영남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를 거쳐 2004년 문화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삶의 다양한 부분과 융합된 해박한 지식과 현장의 감동을 전하는 특유의 언변으로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미술사적 지식을 널리 나누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의 미술작품과 조형물, 문화재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게 함으로써

일시 _ 7월 1일(토) 오후 3:00
연주 _ 홍승아(첼로), 장희진(피아노)

지금 시대에 필요한 안목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까지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과거의 문화가 오늘날 문화재가 되고 오늘의 문화가 미래의 문화재가 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번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산 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 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의 연주로 쇼팽의 ‘녹턴 제2번’을 들려준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김경일



바이올린 이현우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 들려주는 인간관계 지침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에서는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타인과 나'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김경일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창의성에 관해 연구했다. 공중파 TV의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강연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일시 _ 10월 14일(토) 오후 3:00
 연주 _ 이현우(바이올린), 정성혜(피아노)

다양한 각계 전문가가 모여 인문 지식을 풀어주는 인문학 특강쇼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경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강연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강연을 통해 어려운 심리학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쉽게 전달해 왔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연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인 '인간관계'에 대해 예리하게 파헤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산 CBS 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의 연주로 윌리엄 볼름의 '우아한 유령'을 들려준다.

104세 철학자 김형석
백년 인생(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클라리넷 장재현

◆ 2023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의 마지막 주인공은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 김형석 교수. 삶을 관통하는 철학적 사유로 우리를 일깨우는 시대의 지성이자 104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저작 및 강연 활동을 펼치는 김형석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카고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 냈으며, 평생 동안 학문 연구와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1960년대 초대형 베스트셀러 '영원과 사랑의 대화'를 비롯해

일시 _ 11월 11일(토) 오후 3:00
 연주 _ 장재현(클라리넷), 하수민(피아노)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지혜로워지는 것"이라는 김형석 교수는 스스로 살아본 인생을 돌이켜 깨달은 삶의 비밀들을 인생 후배들에게 다정한 소리로 들려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물론 사회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심까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삶의 지혜를 제시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장재현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장을 들려준다.

2023 제41회 부산연극제



4월 7일(금)-5월 19일(금)

영화의전당, 부산예술회관,
남구평화공원 외 부산지역 소극장

통합관람권 10만원,
섹션B 2만원, 섹션 U.S.A.N 무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의 축제 '부산연극제'가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지난 1983년 첫 발을 내딛은 후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부산연극제는 그동안 대한민국 연극제의 예선을 겸한 뜨거운 경연의 장으로, 국내 작가의 창작극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부산연극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연극제 예선무대가 아닌 시민들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6월 16일~7월 7일)에서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창작극 '1945'가 부산 대표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부산예선은 지난해 1차 서류 및 영상심사를 거쳐 2차 전문평가단 및 시민평가단 심사, 3차 PT발표 및 인터뷰 심사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1945'가 선정됐다. 창작극 '1945'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고민을 근원으로 돌아가 창작한 작품으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해방이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갑작스런 해방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내던 일반 민중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내밀하게 들여다본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당시 심사평을 통해 '1945'가 '광복과 현 시대상황을 연결하여 인간 군상의 다양성을 그려낸 연출의 작품 분석이 뛰어났으며 배우의 특성과 스텝 분야의 앙상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1945'는 대한민국연극제에 앞서 4월 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부산연극제 개막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다. 이번 부산연극제는 부산 대표 극단의 공연들이 펼쳐지는 Base, 부산의 신진 극단이 참여하는 Unique를 비롯해 전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백 경연대회 Social, 부산시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All,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지는 Noise 등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개폐막식

◉ 개막식 및 개막공연 '1945'

4월 7일(금)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폐막식 5월 19일(금)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개막공연 '1945'

Base

부산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경연무대로, 경연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순위와 서열을 나누는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의 시상제도를 신설, 참가단체가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무대이다.

◉ 극단 세진 '피터스 오딧세이'

4월 15일(토)-16일(일) 오후 5:00 용천지랄 소극장 ※전체 관람가

프란츠 카프카 원작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모노드라마, 마임, 서커스, 라이브 연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롭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연출·출연 김세진**

◉ **극단 아이컨택 '룸메이트'**

4월 18일(화)-19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 소극장 ※15세 이상 관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장 잊고 싶은 순간들이 아닐까, 꿈을 위해 준비하는 룸메이트 세 친구의 일상을 통해 20대 청년 남자들의 현실 코미디극이 펼쳐진다. **작 백규진 | 연출 박용희**

◉ **극단 우릿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만날 때'**

4월 20일(목)-21일(금) 오후 7:30 나다소극장 ※12세 이상 관람
폐장일을 맞은 한 놀이공원에 각각의 이유를 지닌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들이 나누는 서로 다른 대화를 통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작 추연우 | 연출 강인정**

◉ **극단 누리에 '임대아파트'**

4월 22일(토)-23일(일) 오후 5:00 용천지랄 소극장 ※12세 이상 관람
임대아파트에 사는 친구 정호와 재생. 각자 영화감독과 배우를 꿈꾸지만 삶은 녹록하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 그리고 남루하지만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 김한길 | 연출 강성우

◉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

4월 25일(화)-26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 소극장 ※12세 이상 관람
자갈치시장 노총각 덕구씨에게 시집온 몽골 아가씨 자르갈과 자갈치시장의 트러블메이커 박복녀.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는 두 여자의 만남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과정을 통해 함께 함의 의미를 전한다. **작 김지식 | 연출 김태호**



◉ **극단 이야기 '위험한 커브'**

4월 27일(목)-28일(금) 오후 7:30
나다소극장 ※17세 이상 관람
안톤과 루돌프 형제는 커브길 아래에 살며 이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국장 크리그바움이 도로 환경 개선을 약속하면서 묘한 기류가 흐



르기 시작한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계층간의 갈등과 인간의 이면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작 탕크레드 도르스트 | 편역 정진수 | 재구성 남혜진 | 연출 박현형

◉ **극단 드렁큰씨어터 '최저인간'**

4월 29일(토)-30일(일) 오후 5:00 용천지랄 소극장 ※13세 이상 관람
괴물들을 피해 지은이 숨어사는 어느 작은 컨테이너. 어느날 컨테이너를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희연을 구하는데... 극한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작·연출 윤준기**

◉ **극단 스테픈울프 '몽심'**

5월 2일(화)-3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 소극장 ※15세 이상 관람
항상 남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모습의 세은, 그런 세은과 달리 직설적이고 차가운 모습의 이란성 쌍둥이 언니 몽심. 불행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던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작품이다.
작·연출 정아린

◉ **극단 판골 '게릴라 씨어터'**

5월 4일(목)-5일(금)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5:00 나다소극장 ※전체 관람가
어느 인적 드문 정글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인 순박한 4명의 게릴라가 있다. 그들은 총알도 발사되지 않는 나무총으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부군과의 전투를 위해 늘 전쟁 훈련을 한다. 누군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바보같은 게릴라들을 통해 오늘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작은 위로를 던진다. **작 오세혁 | 연출 양재영**

◉ **극단 아티스트릿 '알고리즘'**

5월 6일(토)-7일(일) 오후 5:00 용천지랄 소극장 ※13세 이상 관람
시골 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된 경수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태수를 만나 다시금 괴롭힘을 당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친구는 한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연출 박성준**

◉ **극단 연 '시라노'**

5월 9일(화)-10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7세 이상 관람가
유난히 큰 코에 대한 콤플렉스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시라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지는 작품.
연출 김학준

● 극단 코코 ‘물의 우비 입은 날’

5월 11일(목)-12일(금) 오후 7:30 나다소극장

비가 오는 날, 우산 대신 우비를 입었다는 최족으로 국민재판을 받게 된 지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으로, 지영의 억울함은 무시한 채 유죄를 선고하는데... 편식화된 정보를 통해 권력자들에게 무의식이 잠재당하는 사회를 희화한 작품이다.

작 추연우 | 연출 안로겸

● 극단 B급로타리 ‘시절’

5월 13일(토)-14일(일) 오후 5:00 용천지랄 소극장 ※15세 이상 관람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 학폭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마주했고 또 누군가는 직접 겪었던 그 폭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작·연출 권상우

● 극단 아센 ‘메카, 그 해 따뜻한 겨울’

5월 16일(화)-17일(수)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7세 이상 관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대한 사막의 작은 마을에 사는 괴짜 할머니 헬렌. 자신만의 ‘메카’를 만들면서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던 중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번 작품은 인간의 자각에 관한 이야기이자 우리네 인생에 대한 정체성의 본질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연출 호민

Unique

부산지역의 신진예술인 및 미래의 공연예술을 선도할 차세대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무대로, 젊은 신진다운 과감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무대를 접쳐볼 수 있다.

● 극단 잠방 ‘케밥을 사왔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4월 15일(토)-16일(일)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15세 이상 관람

7년간 동거를 해온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신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도발한다. 가장 가까운 연인 사이이지만 서로에게 가면을 쓰고 있는 두 남녀가 외면하고 있던 서로에 대한 감정들을 분출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연출 조지원

● 극예술실험집단 초 ‘스펙트럼 분석기’

4월 22일(토)-23일(일)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만 15세 이상 관람

대사 외에 우리가 연극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막연한 언어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결핍들을 감각적인 추상화로 재현한 작품이다. 기획·연출 김동규

● 극단 원테이크 ‘홀리스’

4월 29일(토)-30일(일)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만 15세 이상 관람

2023년. 청년들은 그들만의 방 한 칸 갖기 어려운 세상이다. 척박한 세상 속 저마다의 자그마한 희망으로 살 집을 계약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부동산 사기. 그들은 첫 만남부터 뼈격대고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지만, 결국 다같이 힘을 모아 범인을 잡기로 하는데... 작·연출 한정현

● 극단 물레방아 ‘비평가’

5월 6일(토)-7일(일)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전체 관람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의 작품. 서로를 의식하며 견제해온 비평가 볼로디아와 극작가 스킨카파다가 ‘연극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연극의 참맛을 선사한다. 번역 김재선 | 연출 최유경

● 극단 단추 ‘도담도담’

5월 13일(토)-14일(일) 오후 7:30 소극장 6번출구 ※전체 관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다 함께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연극을 준비하는 4명의 청춘이 있다. 모두들 행복하게 연극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애써 하나씩 감춰놓은 감정들이 폭발해 싸우게 되고 결국 연습은 중단된다. 이를 계기로 서투른 아이들은 자신과 친구들 서로를 돌아보고 ‘나’와 ‘너’를 배우게 되는데...

Social

부산을 제외한 전국 예술인들의 개인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온라인 독백 경연대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독백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예술인뿐 아니라 배우 지망자들까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이다. 연극제 기간 동안 부산연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All

부산지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대로, 시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관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4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남구 평화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Noise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부대행사 프로그램으로, 이번 섹션을 통해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2023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영화도시 부산이 자랑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4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영화의전당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초의 단편영화제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단편영화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지난 1980년 부산지역의 독립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1997년 '부산단편영화제'와 2000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를 거쳐 2010년부터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 경쟁 및 초청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단편영화를 시상하는 한편 세계적인 단편영화를 초청,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산국제 단편영화제는 국내 최초 아카데미 공식 인증 영화제로, 국제 및 한국 경쟁부문의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은 미국아카데미의 단편 부문 후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영화 예술의 본질적인 유산을 점검하고 영화 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자 '영화&유산'을 주제로 선정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개폐막작을 비롯해 경쟁부문, 주빈국 등 총 7개 섹션을 통해 전세계 약 143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경쟁부문에서는 국제경쟁 부문의 112개국 2,877편, 한국경쟁 부문의 705편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제경쟁 27개국 40편, 한국경쟁 20편이 선정됐다.

우선 올해 출품된 국제경쟁 부문에서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관점, 치열한 사유를 통해 발견한 세상의 다채로운 이면, 이를 통한 삶의 보편적 가치를 재현하는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다. 특



4월 25일(화)-5월 1일(월)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부산국제단편영화제 742-9600,
www.bisff.org

히 가속화되고 세분화된 디지털 제작 환경, 영화와 뉴미디어의 융합과 발전은 제작 측면에서 도구의 발전을 넘어서 새로운 영화미학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극영화가 많은 작품을 차지하면서도 독창적인 시선과 영화 만들기가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두드러졌다. 예심을 통과한 총 60편의 본선 진출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동안 만날 수 있으며, 본선 심사를 거쳐 각 경쟁 부문별 최우수작품상, 우수작품상, 심사위원특별상, 관객상 등 총 10개 부문의 상과 함께 2,600여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4월 2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올해 영화제를 대표하는 무성 코미디 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작품 등 3편으로 구성된 개막작

과 함께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지며, 5월 1일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국제경쟁 및 한국경쟁, 오페레이션 키노 등 경연부문 최우수작품상 3편을 폐막작으로 상영한다. 매년 한 국가의 영화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주빈국 프로그램의 올해 주인공은 미국으로, 다양한 단편영화 및 필름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이 외에도 아시아 영화를 조명하는 '아시아 쇼츠', 한국의 단편영화를 주제별로 집중 조명하는 '코리안 쇼츠', 3D와 인터랙티브, 실험영화 등 영화 형식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비욘드 쇼츠'까지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편 영화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영화제에서는 영화제 40주년을 맞아 40회를 기념하는 역대 수상작 특별 상영과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작 초청 상영, 역대 수상자 오픈 토크 및 역대 영화제 자료 전시,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선구자를 선배로 둔 후배들이 힘내라

창단 50주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



◆ 조봉권 국제신문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부장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찾아보니 197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30달러였다. 세계 1위 미국은 7,290달러, 이웃 일본은 3,620달러, 세계 평균은 1,175달러였다. 1973년, 한국은 여전히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 게다가 1973년에 제1차 세계석유파동이 터졌다.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참고로 2021년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 4,980달러이다.

선구자

그해 2월 25일 부산시립무용단은 태어났다.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은 시립무용단을 가질 준비가 아 마 아직 돼 있지 않았을 터였다. 그 증거가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이 한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어떤 도시도 좀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때, 남보다 멀리 보고 남보다 일찍 나서서 꿈과 목표를 이

루려고 실천하고 다른 이를 이끌고 밀어주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한다. 부산시립무용단 창단을 주도한 황무봉 초대 안무자, 손세란 제4대 안무자(이상 부산시립무용단 공식 기록), 강이문 초대 부단장 등이 바로 선구자이다. 그리고 선구자는 어렵고 험한 길을 걷게 돼 있다.

부산의 원로 작가 신태범은 부산시립무용단의 이른 창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과정은 졸속이었다”(국제신문 2001년 11월 28일 자 ‘신태범의 부산문화 야사’ 115회 시립예술단의 명암 2)고 비판했다. ‘시립’에 걸맞은 지원이나 자원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밍크코트 공연

1973년 부산에서는 제54회 전국체전이 열리기로 돼 있었고, 그 해 10월 10일 한국 첫 공공문예회관인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했다. 부산시립무용단 창단공연 ‘아아 동래상’(안무 황무봉, 대본 향파 이주홍, 연출 강이문, 음악 박범훈 등)은 전국체전 전야제이자 부산시민회관 개관 기념으로 1973년 10월 11일, 12일 대극장에서 열렸다.

그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놓여있다. 행정 관료들은 전국체전을 그럴 듯하게 치르고 시민회관 개관의 구색을 맞추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연이 실제로 이뤄지게 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과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더더구나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신태범 작가의 글을 참고해보자. 부산시는 창단 공연을 위한 제작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창단 주역들이 외상으로 겨우겨우 준비한 공연의 막을 올리기 직전, 빗쟁이들이 몰려들었고 창단공연은 엿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 무용가 손세란이 나섰다. 선물받은 밍크코트를 잡고 구한 돈 30만 원으로 외상값을 해결하면서 비로소 사태는 진정됐다. “후일 그들은 그 공연을 ‘밍크코트 공연’으로 불렀다.”(국제신문 2001년 9월 17일 ‘신태범의 부산문화 야사’ 96 무용가 손세란)

디지털부산문화문화대전-부산시립무용단 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1975년 제2대 안무자 김현자가 재직하던 중 1977년 상임 단체로 승격되면서 단원을 재모집하여 정단원 20명, 연구단원 20명, 총 40명으로 재출범하였다.” 가시밭길이었다.

BIFF 못지 않다

여기까지 보면, 부산시립무용단 창단은 앞날을 내다본 통찰력과 기획력 그리고 과감함의 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출범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초창기에 겪은 어려움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BIFF보다 더 심하게 고생했다. 여기서 우리는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 올라선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 예술계에 끼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그건 BIFF가 부산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양상과 비슷하다. 부산 춤 예술계의 구심점 구실을 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나는 2000년 10월께부터 춤 담당 기자가 되어 꽤 오래 부산시립무용단을 출입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 2000년대 초 부산의 춤 예술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 ‘센터’에 부산시립무용단이 있었음을 확연히 느꼈다. 시립무용단은 큰 규모의 정기공연만 한 게 아니었다. 일찌감치 솔리스트전을 비롯한 단원 개개인의 창작춤 공연을 기획하고, 다른 지역 춤 단체나 개인을 초청해 중소 규모 기획공연을 펼친 사실이 주룩룩 검색됐다. 시민을 더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야외공연이나 소극장 무대에도 꽤 썼다.

단원들의 외부 활동에도 그렇게 엄격하게 빗장을 걸지 않아, 기

량 좋은 시립 단원들이 외부 공연에 출연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정기공연 때 대형 작품이 무대에 오르면, 지역 일간지에 부산 뿐 아니라 전국권 비평가들이 리뷰를 썼다. 이렇다 보니, 부산시립무용단은 자연스럽게 구심점이 되었고 부산 춤 예술계를 떠받치는 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고마움

50년 전 태어난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부산 춤 장르의 환경과 여건을 놓고 본다면,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일정한 ‘전성기’와 비교해 어렵고 열악해졌다. 그렇다고 해도 부산시립무용단의 비중과 중요함과 책임과 가치는 줄지 않는다. 더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해왔다. ‘이게 뭐가’ 싶어서 좀 살펴보려 하면 그 뒤의 변화가 또 들이닥쳐 정신을 탈탈 털어가면서 변화를 요구했다.

부산시립무용단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겠지만, 잘 버티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런 때 부산시립무용단 구성원들이 초창기의 선배와 선구자들을 떠올려주면 좋겠다. 가난하고 혼란스럽던 그 시절, 부산에서 한국 첫 시립무용단을 만들어 예술 발전의 씨앗을 뿌린 그분들의 공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헌신보다 절대 작지 않다고 나는 진심으로 느낀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구성원들이 부산시립무용단 50주년 역사에 고마움을 느껴주기 바란다. 그럼 모습을 보이면, 부산 시민은 아낌 없이 박수를 보내며 더 큰 사랑을 보낼 것이다.

그대들의 어깨

지난 2월 2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창단 50주년 특별공연 ‘The Time to Dance’를 보았다. 이정윤 예술감독이 진행한 ‘Dance E Book’(www.bscc-bmdc.com) 론칭 장면도 인상 깊게 보았다. 공연 구성에서 시민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친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느꼈다.

부산시립무용단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예술 측면에서 수월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로서 말 그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부산다움의 예술 또한 고민해야 한다. 50년주년 기념공연을, 50년 전 창단공연을 했던 곳에서 펼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느꼈다. 이들은 할 수 있겠구나! 이들이 꼭 해줘야겠구나!

무대 위에서 진정 자유로운 존재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 박진홍 음악평론가

3월 10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2021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브루스 리우의 리사이틀이 열렸다. 3월과 4월, 그리고 10월, 총 네 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자들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첫 연주였기에 더 큰 기대감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았다. 부산에서는 국제 콩쿠르 우승자들의 연주를 그리 자주 볼 수 없어서인지 많은 피아노 연주자들과 음악애호가들이 객석을 메워 열기가 뜨거웠다.

첫 곡은 장 필립 라모의 소품, 여섯 곡이 연주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하프시코드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어 충분히 도전적이다.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바로크 작품의 재해석에서 선명함과 명확함을 택해 왔던 것 같다. 하프시코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색채를 재현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브루스 리우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호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모든 소리의 가치를 균일하게 안배하여 매우 오묘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필자의 자리는 피아니스트의 측면이 그대로 보이는 가운데 자리로 연주자와 높이가 거의 같았다. 필자의 시각에서 보면 피아니스트의 의자가 상당히 낮아 보였다.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강렬함보다는 팔꿈치 아래에서 단련된 일관성으로 다양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페달의 사용에 있어서도 세밀한 조절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첫 곡부터 브루스 리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바로크의 하프시코드 음악으로 필자와 관객들을 이렇게 매료시켜 빠져들게 할 줄이야.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바로크 음악의 현대적 재해석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날 연주는 현대를 넘어 미래지향적 연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쇼팽의 모차르트 <돈조반니> 중 아리아 '그대 손을 내게 주오'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연주되었다. 낮은 의자 위에서 굽어 있던 등이 쇼팽을 연주하며 쭉 펴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역동적인 힘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점이나 기교적인 표현을 구사할 때 오히려 퍼졌던 몸이 다시 굽어진다는 것이었다. 앞선 라모의 작품 연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말 변화가 많은 연주였다. 프로그램 책자에 천변만화라고 표현한 것이 참 적절하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다채로움 속에서도 미세한 에너지의 조절과 생명력 넘치는 탄력이 강력하게 전달되었다.

후반부 첫 곡으로 쇼팽의 '장송행진곡'이 연주되었다. 전반부와는 음색과 연주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지는 무대였다. 기대했던 쇼팽 작품의 연주보다는 좀더 과감하게 선명한 대비와 확실성을 보여주곤 하던 것 같다. 곡 자체가 담고 있는 분위기 역시 너무 무겁지도 슬프지도 않게 그저 담담하게 연주하였다. 마치 치열하게 살았으니 죽음조차 아쉽지 않다는 듯 말이다.

이어서 '새로운 3개의 연습곡'이 앞선 '장송행진곡'의 짧은 4악장이 주는 분위기를 이어주었다. 마치 스스로 장송행진곡의 4악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 분위기를 이어받으며 루바토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순간 관객들은 건반 위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연주자의 영혼이 느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돈 주앙의 회상'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리스트의 작품이 갖고있는 기교의 초절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여전히 적당히 구부정한 자세로 연주했으나 용수철이 튕듯 굉장한 탄성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연주를 보여주었다. 힘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적절히 잘 안배하여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쯤 되었을 때 관객들은 몰입을 넘어 자아조차 수많은 음표들을 타고 사라져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 울림이 잦아들기 전,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커다란 파도가 되어 몰아쳤다. 쉬이 감동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곧 이어 앵콜이 시작되었다. 연주자는 앵콜 연주에 시시콜콜 이유를 달거나 땀을 들이지 않았다. 감사의 표시를 하고 곧장 피아노에 앉았고,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내달렸다. 그렇게 그는 '라캄파넬라'와 '엘리제를 위하여 변주' 등을 포함하여 총 7곡을 관객들에게 선물했다.

객석은 큰 감동으로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았다. 열광하는 청중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넉넉하게 해주어 감동했고, 무대 위에서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연주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열정을 읽어 낼 수 있었다. 머지않아 브루스 리우의 연주를 부산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무대에도 큰 기대감을 가져 본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일 시 | 3월 16일(목)-4월 27일(목) 평일 오전 11:0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2023년 들어 처음 마련하는 가족 뮤지컬. 부산지역 대표 어린이 전문예술 단체인 극단 동그라미그리기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기존의 '백설공주' 이야기에 동화 속 마법거울에 담긴 의미를 새로이 재조명해보는 작품으로, 거울에 비쳐지는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왕비와 거울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백설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산시립극단 제74회 정기공연
집집·하우스 소나타

일 시 | 3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4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2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년 올 한 해 지역 및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이 올해 첫 정기공연으로 마련한 창작극 '집집·하우스 소나타'.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 공모 선정작이자 그해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한 한현주 작가의 '집집·하우스 소나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주거의 공간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집을 둘러싼 다층적 욕망과 불안을 조명한 작품이다.

- 작/한현주
- 객원연출/주혜자

KNN방송교향악단 슈퍼스타 시리즈
소프라노 서선영&바리톤 이동환 듀오콘서트

일 시 | 4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사)KNN방송교향악단 010-7990-9568



세계 3대 콩쿠르인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서선영과 세계 오페라극장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비냐스&벨레데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바리톤 이동환이 함께하는 KNN방송교향악단 슈퍼스타 시리즈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수영구 여성합창단,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라온콰이어와 함께 탄생 210주년을 맞은 '오페라의 제왕'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서희태

유럽 최고의 스페니시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일 시 | 4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럽 최고의 스페니시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부산공연. 콘체르토 말라가는 7대의 바이올린과 3대의 비올라, 2대의 첼로, 더블 베이스와 하프시코드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로, 그동안 17세기 스페인 음악부터 현대의 대중음악까지 아우르며 스페니시 클래식 정수를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이자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와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이자 김병호류가야금산조연구회, 부산앙금양상을 회원으로 있는 가야금주자 김소정의 협연으로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스페니시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플레이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생일파티 대소동

일 시 | 4월 8일-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중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 (예매 시 R석 3만8천원, S석 3만5천원)
문 의 | (주)엔투게더 070-4108-9999



유튜브 전 세계 구독자 1억명, 누적 조회수 600억 등 전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키즈 콘텐츠 핑크퐁을 만날 수 있는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생일파티 대소동'. 특히 이번 무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성으로 배우와의 대화, 노래, 춤 등을 통해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 뮤지컬이다. 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바닷속 친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환경요령에 대한 문제인식과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힐링뮤지션 휴[Hue]
K-POPERA Concert in Busan

일 시 | 4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 B석 2만원
문 의 | 예감 1600-6867



한국 최초 팝페라 혼성듀오인 힐링뮤지션 휴[Hue]의 K-팝페라 콘서트. 지난 2008년 공식 데뷔 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류를 이끄는 팝페라 듀오로 활동 중인 휴[Hue]는 2013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가교시마 MBC 60주년 테마가수로 선정됐으며, 2017년에는 일본 동경예술극장에서 대중음악 장르이자 한국인 듀오로는 최초로 단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김성, 이광진, 바리톤 김기환 등 독일, 이태리 유태파 출신의 실력파 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3인조 성악그룹 'Chess Singers'와 함께 가장 한국적인 팝페라를 들려준다.

- 음악감독/강현민(작곡가)

부산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 & Friends

일 시 |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마린세븐 A&M 010-6295-8552



그동안 부산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와 함께 무대에 섰던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소프라노 김재은과 베이스 크리스토퍼 템포렐리, 피아니스트 계명선(이화여대 교수), 김정권(부산대 교수), 첼리스트 김민지(서울대 교수)가 관객과 만난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서는 진주시향 상임지휘자 정인혁의 지휘로, 김동욱(악장, 부산대 교수), 김남훈(계명대 교수), 김가영(경성대 교수), 김민지(서울대 교수), 이일세(부산시향 수석), 이영수(서울시향 부수석) 등 화려한 실력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 friends 현악앙상블이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아름다운 봄밤을 선사한다.

김진세 기타 리사이틀 RECORDA

일 시 | 4월 15일 토요일 오후 6:30 **챔버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학생 전 좌석 3만원

문의 | 파티타 02-3471-0017



유럽에서의 다양한 무대 경력과 세계 우수 국제콩쿠르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진세 독주회.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학사과정, 쾰른 국립음대 마스터과정 및 최고연주

자과정을 졸업한 김진세는 2021년 데뷔 음반 'Le Départ(출발)'을 발매했으며, 2014년 게벨스베르크 국제기타콩쿠르 2위를 시작으로 2015년 코블렌츠 기타국제콩쿠르 2위 및 호아린 로드리고 특별상, 리기타 기타국제콩쿠르 1위, 2017년 아헨 기타국제콩쿠르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번째 앨범 'Recorda' 발매를 기념하는 무대로, 수록곡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베이스바리톤 박순기 독창회

일 시 | 4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아트네상스 010-9293-5854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호주 시드니오페라 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성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스바리톤 박순기의 무대.

시드니 국립오페라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박

순기는 시드니, 울릉공, 흑스버리, 오렌지, 솔헤이브, 존카르덴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페트리아루카스 스콜라십, 존&제임스 암스트롱 어워드를 수상했다.

박순기는 그동안 세 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듀오 콘서트, 오페라 '돈 파스칼레', '마술피리', '리골레토', '라 보엠', '오텔로', '춘향전'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 피아노/김경미 • 클라리넷/이지수
- 바리톤/유용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버트르크

일 시 | 4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연하고 정교한 바톤 테크닉과 정돈된 해석으로 난곡들을 마력처럼 풀어내는 마에스트로 금노상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9회 정기연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년 정기

프로그램

멘델스존/‘핑갈의 동굴’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버트르크/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 지휘/금노상 • 바이올린/나승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일 시 | 4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0년 전통의 독일 명문 오케스트라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카라얀이 살아 돌아왔다’는 최고의 평을 듣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수석 지휘자 마르코 레토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클래식의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브람스/‘대학 축전’ 서곡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브람스/교향곡 제4번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호통판사 소년범의 아버지 천중호

일 시 |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다채로운 실내악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강연형 콘서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첫 번째 무대.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된 호통판사 천중호가 '소년범과 정의'라는 주제로, 이 시대

의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소년범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강연의 수익금 전액은 지역 청소년복지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소영이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 왈츠', 가곡 '마중(윤하준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란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봄에 들려오는 희망의 노래

일 시 | 4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 의 | BMPO 070-7727-0188



지난 2009년 7월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BMPO)가 우리의 일상과 감성을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마련한 무대.

상임지휘자 김영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07년 베토벤의 고향인 독일 본에서 열린 국제 베토벤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한국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울산대학교 교수, 루체 현악앙상블 단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내리가 출연하여 우리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을 갖는다.

- 지휘/김영수
- 피아노/유영욱 • 바이올린/김내리

(재)부산문화회관 월드콩쿠르우승자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일 시 |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수준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세 번째 무대.

세계적인 젊은 기타리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최고 권위의 기타 국제 콩쿠르인 '빈 기타 국제콩쿠르'의 2021년, 2022년 우승자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한국음악인 최초 스페인 국왕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한국 기타음악의 거목 기타리스트 장승호가 한 무대에 서며, 월간 객석 편지장을 역임한 콘서트 가이드 국지연의 상세한 해설로 섬세한 기타 선율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지휘자 최영선이 지휘하는 아르떼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하나, 박현진, 변향숙, 오예은, 테너 신상근, 김준연, 이태홍, 바리톤 최종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지역의 성악가들이 우리 귀에 친숙한 다채로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최영선 • 연주/아르떼오케스트라
- 소프라노/박하나, 박현진, 변향숙, 오예은
- 테너/신상근, 김준연, 이태홍
- 바리톤/최종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Muy bien, 일싸구 좋다!

일 시 |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타 장르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국악 창작곡의 멋과 신명을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있는 이 건석이 객원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부수석 박순자, 청주시립국악단 대금 차석 이창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가수 신승태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최성환(편곡 김성진)/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송정/피리협주곡 'Neo C(Commander)'
 이유진(편곡)/피아졸라 작품에 의한 대금 협주곡 'Great Astor'
 이지영/따뜻한 세상을 부르는 '오늘은' 등

부산시립합창단 제189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일 시 |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5일 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3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진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부산시립합창단의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아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일 시 | 5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름다운 봄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봄'을 비롯해 호른앙상블, 플루트·첼로 듀오, 현악6중주 등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베버/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사냥꾼의 합창'
 모차르트/현악사중주 제14번 작품 10 '봄'
 브람스/현악6중주 제1번 작품 88 등



부산시민회관

라포엠 앨범 발매투어 The Alchemist

일 시 | 4월 1일 토요일 오후 6:00
2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의 | ㈜밝은누리 1566-9621



JTBC '팬텀싱어3' 우승팀으로 테너 유채훈, 박기훈, 카운터테너 최성훈, 바리톤 정민성 등 팀원 모두가 성악 전공자로 구성된 라포엠이 신보 'The Alchemist' 발매 이후 갖는 첫 투어 콘서트.

라포엠은 탁월한 음악 기량과 환상적인 하모니로 '성악 어벤저스'라는 수식어로 불리기도 하며 매 공연마다 고퀄리티의 라이브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발매된 라포엠의 신보 'The Alchemist'는 전쟁 같은 삶에서 황폐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긍정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번 투어 콘서트에서는 새 앨범에 담긴 라포엠의 신곡들과 그동안 사랑받았던 다양한 레퍼토리를 함께 만날 수 있다.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물고기

일 시 | 4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의 | 극단 오즈 1661-6702



전 세계 3,000만 부 이상 판매, 5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된 마르쿠스 피스터의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무지개물고기'.

욕심쟁이 어린이가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우연히 멧쟁이 MC 가재를 만나 바닷속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들이 도착한 푸른 바다 마을에서는 무지개 물고기와 바다 친구들의 레인보우 콘서트 준비가 한창인데, 갑자기 험상궂은 사크가 나타나 희망을 놓기 시작한다. 이번 무대는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국내 최초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로, 환상적인 무대와 영상으로 신비로운 바닷속 판타지 월드가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일 시 | 4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8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대를 뛰어넘은 낭만발레의 대명사, 유니버설 발레단의 '지젤'. 1841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지젤'은 흔히 발레 하면 떠오르는 순백의 로맨틱 튜튜를 입은 발레리나들의 군무, 주역들의 화려한 테크닉과 사랑

이야기 등 명작의 요소를 고루 갖춘 작품이다. 특히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에 대한 호평과 영광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세계적 수준의 군무에서 찾을 수 있는데, 푸른 달빛 아래 순백의 면사포와 로맨틱 튜튜를 입은 월리들이 공기 속을 부유하듯이 시시각각 대열을 맞추며 정교하게 추는 춤은 백색 발레의 최고봉으로 손꼽힌다.

2023 이은미 전국투어 콘서트 NOCTURN

일 시 | 4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의 |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688-3820



데뷔 30주년 기념으로 진행됐던 '30yrs, 1000th Thank You' 투어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맨발의 디바' 이은미 전국 투어콘서트 부산공연.

지난 1989년 신촌블루스의 객원가수로 데뷔한 이은미는 1집 '기억 속으로'

를 시작으로 총 6장의 정규 앨범과 3장의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하며 깊은 감수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실력과 보컬리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투어의 타이틀인 '녹턴'은 이은미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로, '그동안 잘 지냈나요, 먼저와 기다렸어요'라는 가사처럼 팬들을 향한 이은미의 그리움과 진정성을 담고 있다.

뮤지컬 민짜미 사랑해요 엄마

일 시 |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6만6천원
문의 | DS뮤지컬컴퍼니 1577-4868



어린이들의 워너비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 민짜미를 무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민짜미 사랑해요 엄마!'.

현재 '민짜미' 유튜브 채널에서 2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유명 인물루어선으로 떠오른 민짜미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유행 트렌드와 일상 소재를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특유의 유쾌한 매력으로 그리며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뮤지컬 '민짜미 사랑해요 엄마'는 유튜브 지망생이 된 민짜미가 신인 크리에이터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영혼이 뒤바뀌어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뮤지컬 번개맨:우주최강 번개삼총사

일 시 | 5월 5일-6일 금-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7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6천원, S석 3만3천원 (예매 시 35% 할인)

문의 | ㈜하늘이엔티 1655-6675



EBS를 대표하는 어린이들의 영원한 히어로 '번개맨'을 만날 수 있는 가족 뮤지컬.

번개별을 지키는 번개맨은 아차와 아차차의 신무기 뽀송뽀송 빔을 맞고 다른 은하계로 보내진다. 반짝이와 아라는 아라호를 타고 번개맨을 찾으러 떠나고 번개별에 남은 아차와 아차차는 가시별대장에게 세뇌를 당하고 더욱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번개맨 친구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무대는 한순간도 눈을 땄수 없는 스펙터클한 무대와 입체영상, 레이저 등 놀라운 특수효과까지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더불어 지혜와 용기를 선사한다.

음악

게네랄파우제 4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4월 무대.

게네랄파우제는 합주곡에서 '모든 악기가 일제히 쉬는 것'을 뜻하는 음악용어로, 일상생활 중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붙인 이름이다.

1일(토) 오후 7:00 이달현 트리오 'Exit Music'

강렬한 사운드로 쾌감있는 재즈를 들려준 재즈 기타리스트 이달현 트리오의 무대.

- 기타/이달현 • 베이스/박지현
- 드럼/윤혁성

7일(금) 오후 8:00 강혜인 퀸텟 'Chick Corea Tribute'

피아니스트 강혜인을 주축으로 심규환(콘트라 베이스), 홍영호(드럼), 김은호(퍼커션), 정세미(보컬)로 구성된 강혜인 퀸텟의 무대.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의 칙 코리아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8일(토) 오후 7:00 트리오 오르페오 '봄소로의 여행'



오르페오 앙상블 음악감독 및 콰르텟 뮤즈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영희, 성남시립교향악단 객원단원, 뉴 월드 필하모닉 객원부수석, SeoulCello Orc 부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이세민, Deos 기타그룹 리더, 오르페오 앙상블 기타수석으로 있는 기타리스트 이윤정으로 구성된 트리오 오르페오의 무대.

봄날에 어울리는 다양한 연주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14일(금) 오후 8:00 친친탱고 '감상적 하루 (Impresiones)'

부산을 대표하는 탱고앙상블 친친탱고의 첫 번째 앨범 'Impresiones' 출판 기념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음반 수록곡을 비롯해 탱고 황금기 시대인 1940~50년대 곡까지 탱고음악의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담은 곡을 들려준다.

- 반도네온, 작곡/김종완 • 피아노/이안나
- 바이올린/강소연 • 퍼커션/이영훈

21일(금) 오후 8:00 포레누아르 앙상블 'Spring In Love'

피아니스트 문상인을 대표로 연주자 및 성악가들로 구성된 포레누아르 앙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 및 듀오, 성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

- 테너/성민기 • 베이스/김지우
- 피아노/문상인 • 바이올린/김상희

28일(금) 오후 8:00 포레누아르 앙상블 'Foret Noire Loves Spring'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포레누아르 앙상블의 무대로, 봄날 저녁을 아름답게 채워준다.

- 소프라노/강정원 • 바리톤/박진철
- 피아노/문상인 • 바이올린/김상희



29일(토) 오후 7:00 Piotr Pawlak Jazztet '새해는 하드바로 시작하자'

Piotr Pawlak Jazztet의 리더 피오르트 파블락의 음악활동에 큰 영감을 주었던 재즈 뮤지션 아트 블래키를 위한 헌정무대.

- 트럼펫/BoLi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김대규 • 베이스/박주민
- 드럼/Piotr Pawlak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공연 장민호와 함께하는 부산아리랑

일 시 | 4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울속도문화회관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을 방문하는 엑스포실사단을 환영하고 부산시민의 응집력과 엑스포유치를 희망하는 의지를 고취하고자 마련한 무대로, TV조선 미스터트롯 6위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장민호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이우정,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부수석 남순천, 독일코리아재단 성악가 정애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반도네온 연주자 김종완, 그리고 드럼 김민동, 모듬북 김수동이 출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4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5일(제811회) 부산청년성악가협회 창단연주회 '가곡과 아리아 앙상블의 밤'



소프라노 이진아, 정애린, 테너 정은성, 바리톤 김우주, 베이스 최삼중, 피아니스트 조나영, 김재준으로 구성된 부산청년성악가협회 창단연주회.

12일(제812회) 방탕소년 돈 조반니

부산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효원간편페의 무대.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 음악감독/안준희 • 음악코치/조아라
- 해설/김성민 • 소프라노/박소영, 이수진
- 메조소프라노/정연실
- 테너/양승엽, 김정권, 이태훈
- 바리톤/채범석, 최대우, 유용준, 박송기



19일(제813회) 제2회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정기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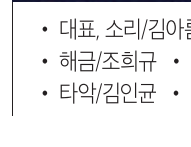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의 무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라벨, 비제, 린스키 코르사코프, 드보르작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듀오 연주로 들려준다.

- 연주/우혜진&김영실, 박소정&이현욱, 이소진 (게스트)&강우용, 김진희&심하정, 김혜선&서보람



26일(제814회) 탈피, 기존의 틀을 벗어나다



각자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음악적 성장이 모여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자 모인 국악실내악단 '탈피'의 무대.

- 대표, 소리/김아름 • 피리, 태평소/여강
- 해금/조화규 • 아쟁/최리디아
- 타악/김민균 • 건박/박수현

4월 음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음**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음이 올해 개관 1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무대.



7일(제494회) 피아니스트 정소영&바이올리니스트 김민희 리사이틀

발레파 국제콩쿠르 1위, 파도바 국제콩쿠르 2위에 입상하고 현재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정소영과 한국음악콩쿠르 대상, 런던 그랑프리 비르투오조 국제콩쿠르 3위, 아메리칸 프로테제 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하고 제주 체임버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민희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14일(제495회) 벨라싱어즈!! 벨라싱어즈
탄탄한 발성 위에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과 함께



해운 성악 전공자 벨라싱어즈의 무대.

'아름다운 가수들'이라는 뜻을 지닌 벨라싱어즈는 지난 2019년 3월 창단 후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21일(제496회) 리베아모르의 토코콘서트

리베아모르 대표이자 부산성악가협회, 해피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베이스 김정대, 강서구여성합창단 지휘자이자 해피앙상블 단원인 바리톤 장진웅, 콜로세오 남성중창단 지휘자로 있는 테너 서치환, 부산성악가협회,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테너 김성, 부산남부교육지청 예술강사이자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는 바리톤 김기환이 함께하는 리베아모르의 토코콘서트.

• 반주/정은경

28일(제497회) 피오트르 파블락 재즈렛

그동안 오스트리아와 미국을 거쳐 현재 양산에 정착하여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폴란드 출신의 음악가 피오트르 파블락이 이끌고 있는 밴드 '피오트르 파블락 재즈렛'의 무대.

피아노 앙상블 PIANETA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피아노 앙상블 PIANETA 010-5156-9611



부산과 경남지역에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지은, 박나희, 서지민, 조은아로 결성된 피아노 앙상블 PIANETA의 무대.

앙상블 PIANETA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학부 졸업 및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중

에 있는 동문들의 앙상블 모임으로, 지난해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2 piano 4 hands 연주로 펼쳐질 이번 무대에서는 여러 작곡가와 시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음악들로 청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라장조 K.448
아렌스키/모음곡 제1번 등

신수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수현 010-4905-4928



부산예술중·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수현의 첫 번째 독주회. 신수현은 부산음악협회콩쿠르 1위,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와 올웨이코리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솔로 연주자의 커리어를 쌓았으며, 한국독일가곡연구회 독일가곡콩쿠르에서 반주자상을 수상하는 등 반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바흐, 베토벤, 리스트, 드뷔시의 작품들과 쇼팽, 라흐마니노프 연습곡을 들려준다.

오페라야 놀자! 모차르트 마술피리

일 시 | 4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만 4세 이상 관람,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5814



울속도문화회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를 선보이는 '오페라야 놀자!' 첫 번째 무대로, 가족오페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환상과 모험의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선보인다.

특히 오페라는 음악, 문학, 무용, 미술이 담긴 종합예술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환상적인 이야기와 화려한 배경, 흥겨운 춤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오페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주)사콘즈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부산시 캐릭터인 갈매기 '부기'가 출연, 어린이들의 동심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박순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4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박순현 010-9028-1826



화려한 테크닉과 독특한 음색을 가진 피아니스트 박순현 독주회.

한양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피아노과에 재학 중 도덕, 데트몰드 국립음대에서 마스터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졸업한 박순

현은 국제마이스터콩쿠르, 부산음악교육회콩쿠르, 부산학생음악콩쿠르 등 국내 우수 콩쿠르는 물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해외 저명한 국제콩쿠르에서도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교적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발라카레프의 'Isamey; An Oriental Fantasy'를 비롯해 바흐-부조니 '사콘즈', 클린카-발라카레프 '중달새', 무소르그스키 'Promenade'를 들려준다.

을숙도 예술공감

일 시 | 4월 18일(화), 25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숙도문화회관이 수준 높은 지역 예술인 발굴을 위해 마련하는 '을숙도 예술공감' 4월 무대.

18일(제24회) 재즈피아니스트 조수임 &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Duo Recital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오랜 시간 정통 재즈를 공부하고 귀국한 재즈피아니스트 조수임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의 듀오 무대로, 크로스오버와 재즈를 넘나드는 라틴음악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25일(제25회) 온가족이 함께 하는 '스크린 영화 OST 음악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명 영화의 OST를 에클레토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제8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3명의 거장 바그너, 차이콥스키 그리고 드보르자크

일 시 |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Apec Nuri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김현국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성주가 협연하는 이번 명품콘서트에서는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바그너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콥스키, 체코의 감성적 작곡가 드보르자크 등 거장 3명의 격조있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정통 클래식 품위를 느낄 수 있다. 협연자 김성주는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Medalla d'Honor, Sviatoslav Richter 국제콩쿠르 전채대상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박사과정에 있다.

- 지휘/김현국 • 피아노/김성주
- 연주/Apec Nuri Philharmonie Orchestra

피아노양상블 프로인트M 창단연주회

일 시 |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프로인트M 010-9885-9237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강형은, 김민주, 신희정, 윤지영으로 구성된 피아노양상블 프로인트M의 창단무대.

강형은은 서울대학교 기악과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반주과, 김민주는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및 독일 카셀시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신희정은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및 부산대학교 석사과정, 윤지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및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 워싱턴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슈만 주제에 의한 네 손을 위한 변주곡'을 비롯해 베히만, 슈베르트, 생상스의 곡을 듀오 연주로 들려준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그대 나의 첫사랑

일 시 |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다채로운 주제와 장르로 만나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4월 무대.

2014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르며 더욱더 이름을 알린 소프라노 황수미가 출연하며 첫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로 있는 김호정이 해설을 맡아 보다 풍부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가니메트, 사랑, 들장미
- 슈만/헌정, 연꽃, 사랑의 노래
- 푸치니/오페라 '리보렐' 중 '내 이름은 미미' 등 수곡
- 피아노/방은현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한국영화음악의 중심, 작곡가 이명로의 영화음악

일 시 |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영화음악, 드라마음악 작곡가이자 부산영화음악협회 대표 손한묵과 함께하는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4월 무대. 손한묵은 2019년 전주 국제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화 '파테르'와 2020년 영화 '런보이런'의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드라마 '의사요한', '에이틴 어게인', '간 떨어지는 동거', '오늘의 웹툰',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봉' 등 유명 작품에 참여하여 영상음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수리남', '헌트', '헤어질 결심'을 비롯해 '말모이', '공작' 등 시대를 아우르는 작품 속 음악들을 작곡한 이명로 음악감독의 작품을 웅장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준다.

사월의 등꽃음악축제

일 시 |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주애 010-6577-3255

우리 정서가 담긴 음악을 작곡하여 한국을 노래한 작곡가故 김국진 선생이 지난 1995년 4월부터 매년 열어온 사월의 등꽃음악축제.

올해 무대에서는 김국진 선생의 가곡 '성산포', '매화 한송이', '석류', '그대 떠난 후', 플루트를 위한 '가야고와 대평원'을 비롯해 작곡가 김성희, 육수근, 변희재, 이주애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베이스 바리톤/박순기
- 소프라노/이민희
- 피아노/김성희
- 플루트/조다운



제16회 굿모닝 콘서트 목관앙상블로 듣는 실내악

일 시 |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블랙업커피 포함,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 콘서트'.

부산을 대표하는 목관연주팀 'JM 앙상블'의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보에와 플루트, 피아노 앙상블로 들려주는 아름다운 연주와 친절한 해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오보에리스트 권성은, 플루티스트 황미리, 피아니스트 유영욱으로 결성된 'JM 앙상블'은 음악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인 팀으로, 따뜻한 하모니와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팀명인 'JM 앙상블'은 'Joy of Music'의 약자.

제8회 하모니 색소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함께해요 행복동행

일 시 | 4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하모니 색소폰 오케스트라 010-3517-3633



음악을 사랑하며 즐길 수 있는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들로 결성된 하모니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8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서동예술인 창작공간 상주단체로 출발한 하모니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으며,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지휘/이상훈
- 객원지휘/진영희
- 오보에/유종석 • 엘트색소폰/송영화
- 테너색소폰/김일화

부산더클래식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더클래식 010-9390-4271

원영아, 이수진, 김미진, 이보리 등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네 명의 피아니스트가 모여 피아노 음악의 아름다움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창단한 부산더클래식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더클래식은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전통적이고 학구적인 클래식 프로그램은 물론 현대음악,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원영아의 해설로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등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독주 및 1 Pianos 4 Hands, 2 Pianos 8 Hands로 감상할 수 있다.



부산 클래식기타 사랑방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 클래식기타 사랑방 010-7530-0759

순수, 클래식기타, 사람 등 세단어로 표현되는 웅골진 모임 '부산 클래식기타 사랑방' 정기연주회.

지난 2010년 클래식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결성된 후 오랜 세월, 열정으로 실력을 다져온 부산 클래식기타 사랑방은 이번 무대에서 코로나19 시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회의 기쁨과 합주의 즐거움을 녹여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앙상블We 제4회 정기연주회 함께하는 날에 감사를

일 시 | 4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앙상블We 010-4254-5586



부산과 경남지역 출신의 발달장애 연주자들로 구성된 스트링앙상블 앙상블We의 무대.

지난 2019년 4월 결성된 후 무지카비바 앙상블 음악감독 및 리더인 박경희 예술감독의 지도하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앙상블We는 이번 무대에서 '함께하는 날에 감사'이라는 부제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박경희
- 해설, 첼로/전명희
- 바이올린/김신실 • 피아노/최민경
- 단원/이휘담(바이올린), 오인제(바이올린), 최우진(바이올린), 진시원(첼로)

연극

뮤지컬 런던레코드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2023년 4월 3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 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예매 시 50% 할인)
 문 의 | 엠스테이지 010-8332-1830



국내 창작 뮤지컬 최초로 전 세계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 진출하는 뮤지컬 '런던레코드'.

조용필, 이문세, 이승철 등 10여 년 동안 콘서트 연출을 맡았던 김민성 연출가가 극작, 작곡,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특히 K-Pop을 좋아하는 전 세계인의 취향에 맞춰 작곡된 최신 트렌드 음악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이번 작품은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극중 인물들을 통해 다시 한 번 꿈을 꾸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코믹연극 달동네

일 시 | 1월 1일(일)-4월 30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화요일 공
연 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예매 시 할인)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웃음과 진한 감동을 전하는 연극 '달동네'. 주인공 아버지 경민은 월남전 참전 중 행정착오로 전사자 처리가 되고, 전사통지서를 받은 아내 혜자는 사춘기 소녀 정음과 철부지 막내 정용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부산의 달동네에 자리잡고 살아가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경민은 귀향 후 가족을 찾아 전국을 다니던 중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아내를 만나는데...

연극 '달동네'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시절 달동네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을 이야기한다.

연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 1월 5일(목)-4월 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 남자가 벌이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을 통해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코미디극 '불편한 타이밍'.

와이프가 친정에 간 틈을 타 친구 오호와 강건을 초대한 정민.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집주인 정민이 사라졌다. 그들 앞에 나타난 시체와 정체 모를 여자, 그리고 조폭까지, 어چه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영화 '행오버'를 패러디한 '불편한 타이밍'은 특히 심 없이 바뀌어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극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연극 운빨로맨스

일 시 | 3월 9일(목)-5월 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
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12세 이상 관람 가능, 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TV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연극 '운빨로맨스'.

부산에서는 첫선을 보이는 이번 무대는 점과 운명을 맹신하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 믿는 남자 '제택후'의 운명적인 로맨스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운명을 맹신하는 여자 '점보니'는 호랑이띠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점계를 듣게 된다. '점보니'는 어느 날 건물주 '제택후'가 호랑이띠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점보니의 호랑이띠 남자와의 하룻밤 보내기 프로젝트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일 시 | 3월 25일(토)-6월 1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클립서비스(주) 1577-3363



한국 초연 22년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한국어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전 세계 1억4천5백만 명을 매혹시킨 걸작으로 토니상, 올리비에상을 포함하여 메이저 어워드 70여 개를 석권한 '오페라의 유령'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34년 넘게 동시에 공연된 유일한 작품으로,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불세출의 명곡이 선사하는 가면 속의 감춰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관객들을 매혹시킨다.

'오페라의 유령' 역의 조승우, 김주택, 전동석을 비롯해 다시는 만나기 힘든 최정상 캐스팅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연극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어

일 시 | 4월 5일(수)-15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일요일 공연 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소설 '광장'의 작가로 유명한 최인훈의 동명 희곡을 무대화한 연극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어'.

평안북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기장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어'는 우리 설화의 시적 상상력을 통해 민중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으로, 가슴속의 응어리들을 집단적 신명의 춤과 놀이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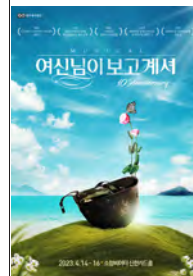
- 작/최인훈
- 연출/전상배
- 출연/최현정, 조정우, 황미애, 임선미, 최민, 고정보, 김선이, 최환희, 옥순주

연극 '여신님이 보고 계셔' 10th Anniversary

일 시 | 4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2:00, 5: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만 10세 이상 관람 가능)

문 의 | ㈜윌드쇼마켓 1566-5490



프랑스 소설가 아멜리 노통브의 소설 '황산'에 실린 로맹가리 일화에서 모티브를 딴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지난 2013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그 해 제19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더뮤지컬 올해의 베스트 창작 뮤지컬

BEST-3,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로 지난 10년간 대하로의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아왔다.

특히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깃든 인물들의 사연을 서정적인 노랫말과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하여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2023 라이브 가족뮤지컬 아기돼지삼형제

일 시 | 4월 15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1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아이에이치컬처 070-4045-2302



귀염둥이 아기돼지 삼형제와 허기에 굶주린 영동한 늑대가 펼치는 코믹 릴레이 추격전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의 엄마는 자식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편지 한 장을 적어놓고 집을 나가고, 이를 안 삼형제는 각자의 집을 짓기로 하는데... 디즈니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유명한 '아기돼지 삼형제'는 서러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교훈적인 내용과 함께 재미있는 음악과 율동, 다양한 무대 변화, 그리고 캐릭터화 된 배우들의 연기가 어린이들을 작품 속으로 이끈다.

가족뮤지컬 슈퍼히어로의 동뎁는 법

일 시 | 4월 22일-2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5만5천원
문 의 | ㈜더화랑이엔터 1800-6567



이제까지의 슈퍼 히어로는 잊어라, 상상을 뒤엎은 극강 코믹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동뎁는 법'.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이탈리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안영은 작가의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슈퍼 히어로의 동뎁는 법'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동뎁는 법을 친절하고 명쾌하게 알려 준다. 특히 발칙한 상상력과 유쾌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일 시 | 4월 25일(화)-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어댑터 플레이스**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어댑터 플레이스 010-4868-2862
www.adapter.theater



여성의 삶과 경험을 다양한 관계를 통해 2인 단막극으로 보여주는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글과 무대의 작가 3명이 쓴 2인 단막극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이번 무대에서는 '운전하기 좋은 날'(작/황정은, 연출/최정배), '팬미팅'(작/김윤영, 연출/박준혁), '이사'(작/진주, 연출/배은채) 등 3개의 에피소드가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기존 연극에서 보여주는 '여성' 인물의 성적 대상화, 스테레오 타입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여성' 캐릭터의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삶의 경험을 관객과 나누고자 한다.
• 출연/엄지영, 박정아, 김진주, 김선현, 박주원

2023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일 시 | 4월 29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3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아이에이치컬처 070-4045-2302



독일의 유명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베스트셀러를 뮤지컬로 제작한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왕성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구성에 신나는 동작과 노래, 어린이의 말문을 틔워주는 의성어, 의태어, 소리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어느 날, 땅 위로 얼굴을 내민 작은 두더쥐 머리위로 똥무더기가 떨어진다. 잔뜩 화가 난 두더쥐는 범인을 찾으러 길을 나서고 토끼, 염소, 말 등 여러 동물을 만난다. 하지만 똥 전문가인 파리가 알려준 진짜 범인을 따로 있는데... 자신이 받은 똥을 똥으로 되갚음해주는 귀엽고도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펼쳐진다.

가족뮤지컬 고양이켓

일 시 |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아이에이치컬처 070-4045-2302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캣츠'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세롭게 제작한 가족뮤지컬 '고양이켓'. 길거리에서 버려진 고양이들은 1년에 딱 한번 고양이들의 축제 '젤리클 축제'를 열고 축제를 통해 '젤리클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젤리클 고양이'가 되면 천상으로 높이 올라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믿고 있다. 각각의 사연도, 성향도 다른 고양이들은 젤리클 고양이가 되기 위해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과연 젤리클 고양이는 누가 될까? 특히 이번 무대는 열정 넘치는 배우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기, 무대를 가득 채우는 영상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일 시 | 5월 5일 금요일 오후 5:00,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7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천재 음악가 라흐마니노프의 멈춰버린 3년,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3년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공연으로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나는 '라흐마니노프'는 천재적인 작곡가로 알려진 라흐마니노프가 첫 교향곡을 완성한 후 흑평과 함께 슬럼프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시기에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공연에 등장하는 17곡은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협주곡을 차용해 작곡되었으며, 특히 무대 위 현악 4중주와 피아노,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무용

춤 동인전 **윤파교방지무**

일 시 |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영남교방춤 부산보존회 010-7314-0260



전통춤 예술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영남교방춤 부산보존회 회원 5명이 펼치는 춤 동인전. 희망과 건강의 활력소가 되어준 전통춤으로, 매주 소통의 꽃을 피워왔던 이들은 이번 무대에서 태평청원무(최복순), 소반춤(이정실), 산조춤(백연화), 허튼소고놀이춤(한금숙), 수건춤(류영자) 등 영남지역 교방에서 추었던 춤들로 깊어가는 봄을 노래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영남교방춤의 명인 박경량 선생이 특별출연하여 교방춤의 진수를 선보인다.

- 해설/백재화
- 우정출연/최은숙
- 아쟁/이관용

콘서트

PITTA 강형호 콘서트 : BE FREE

일 시 | 4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23일 **일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2만천원, S석 11만원

문의 | ㈜윌드쇼마켓 1566-5490



크로스오버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이자 록 보컬리스트 PITTA 강형호 콘서트. 강형호는 포레스텔라 멤버로 국내는 물론 K-크로스오버그룹 최초로 북미투어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인

프로듀서 밴드 PITTA에서 공동 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아 2020년 싱글 'Universe', 'Dandelion'을 발매,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본투비락커 PITTA 강형호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청춘을 향한 힘찬 위로를 담은 '카르페디엠'을 비롯해 4월 공개될 자작곡으로 구성된 스페셜 앨범 수록곡을 들려준다.

영화

제3회 아세안영화주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아세안영화제**

일 시 | 3월 30일(목)-4월 2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80

www.dureraum.org



아세안 국가의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3회 아세안 영화주간'. 올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아 해외 우수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작품성과 흥행력을 갖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9개국의 작품 12편을 선보인다.

상영작

개막작 '7번방의 기적', 아줌마(싱가포르), 바바리안 인베이전(말레이시아), 찬탈리(라오스), 1975 킬링필드, 푸남(캄보디아), 젠산 펀치(필리핀), 마이카:외계에서 온 소녀(베트남), OMG 나의 여친(태국), 사탄의 노예(인도네시아) 등

2023 작은영화영화제 예순일곱 번째 이야기 **말할 수 없는 비밀**

일 시 | 4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입장료 | 전석 3천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80

www.dureraum.org



영화의 길에 들어서서 젊고 열정적인 영화인들에게 지원의 길을 열어가며 상영의 장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작은영화영화제 예순일곱 번째 이야기. 조예슬 감독의 '소금과 호수'(극영화, 상영시간 29분), 김용천 감독의 '굿바이, 제인'(극영화, 상영시간 29분), 김나영 감독의 '무브 포워드'(극영화, 상영시간 19분) 등 세 작품을 감상하고 관객과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행사

4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3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3일(월) 오후 7:00 이우환과 친구들 슈퍼 플랫(Superflat) '무라카미 줌비展'

• 강사/김덕정(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

10일(월) 오후 7:00 오후의 철학 산책_데카르트에서 들뢰즈까지 '죽음이란 무엇인가' 육체와 영혼에 관한 질문'

• 강사/김상곤(컬럼니스트)

13일(목) 오전 11:00 낭독과 낭송_시조창(時調唱)과 詩수다 '불타다 남은 시_요절한 천재시인 이언진을 만나다'

• 강사/이언진(지은이)원경(윤기이) 이라. 2013.

17일(월) 오후 7:00 영화와 OTT의 만남_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OTT '더 글로리', '재벌집 막내 아들', 애니메이션 '사이버 펑크: 엣지러너', 게임 '호크와트 레거시'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24일(월) 오후 7:00 행간의 철학_조르조 아감벤이 독해한 우리의 삶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

• 강사/박수정(영어 K 글쓰기 디렉터)

제18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봄, 편지, 주제 詩낭송회

일 시 | 4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동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알바트로스 詩낭송문화회 010-6367-0149

- 출연/김승희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성악가/바리톤 박경훈

4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오페라 전문 음악 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4월 영상감상회. 매주 화요일에는 교향곡 등 관현악곡을, 금요일에는 고전, 낭만을 아우르는 인기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마스네 '마농'(7일), 푸치니 '마농레스코'(14일), 베르디 탄생 210주년 특집 베르디 '맥베스'(21일), 영화 '가면속의 아리아'(28일)
콘서트(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특집)/영화 '샤인'(4일), 피아노협주곡 제1번, 제2번(11일), 교향곡 제2번, 제3번(18일), 피아노협주곡 제3번, 파가니니 랍소디(25일)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 '전원교향곡',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안드레아 보첼리의 'LIVE IN TUSCANY' 공연실황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전막 감상
바로크 음악기행 '비발디와 몬테베르디의 베네치아 열가 '첼로협주곡', '수수께끼 변주곡', '사랑의 인사'

예필의 인문융합예술 렉처콘서트(9) 아리랑과 조선화의 어울림

일 시 | 4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예필 최정욱 010-3853-6634



음악, 미술, 영화 3개 분야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예술 기행 마지막 렉처 콘서트. 신명(神明)의 한국예술 기행으로, 북한 아리랑, 해외동포 아리랑, 아카펠라 아리랑, 재즈 아리랑, 탕고 아리랑, 힙합 아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아리랑을 조선화(畵)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한국 영화/서편제(1993년 상영, 감독 임권택) 아리랑 음악과 영상/탱고 진도아리랑, 재즈 밀양 아리랑, Amazing Grace Arirang 등 12곡 조선 미술/겹재 정선의 벽하담(碧霞潭), 오원 장승업의 매화도(梅花圖) 등 10점 한국의 詩/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악 으로 본 세상이야기

일 시 | 4월 26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아카데미
입장료 | 무료
문의 | 상지아카데미 240-1529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천재라는 분야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 그 음악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가 필요하며 각

각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본성이 만날 때 시대를 읽어내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길이다.

이번 강좌는 음악이라는 소재로 세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4월에는 '음악-그대 이름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전시

이우환과 친구들 IV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즘비

일 시 | 1월 26일(목)-4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관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세계적 팝 아티스티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초기작부터 회화, 대형조각, 설치, 영상 작품 등 그의 대표작 1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즘비'.

특히 이번 전시는 1월 26일 개막 이후 평일 평균 2,500명, 주말 평균 4,000명 이상이 부산시립미술관을 찾으면서 전시 기간이 한 달간 연장됐다.

어른의 동화 II -김성빈, 과야

일 시 | 3월 21일(화)-4월 22일(토) 아트 소향
문의 | 아트 소향 747-0715
www.artsohyang.com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6:00(일-월요일 휴관)

최성원 초대개인전 詩가 담긴 서정적 풍경

일 시 | 3월 19일(일)-4월 16일(일) 갤러리 한스
문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울산미술 올해의 작가상, 울산예총 공로상, BIAF 작가대상을 수상하고 BIAF 전시감독, JW ART Gallery 전속작가로 있는 최성원 초대전.

타워아트갤러리 개관 40년의해 2023 꽃그림전 '축제'

일 시 | 4월 10일(월)-4월 29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부산시립예술단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노래하다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에서는 (사)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집행위원장 박은하)와 함께 오는 3월 22일부터 2030년 부산의 주역이 될 부산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엑스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노래하다’를 진행한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노래하다’는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등록엑스포, 인정엑스포에 대한 의미와 그동안 엑스포 개최국에서 전시된 발명품을 설명하고 엑스포와 연상되는 음악을 들려주며 10개교 956명의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연주를 맡았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외에도 부산시립합창단이 엑스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부산시립합창단(지휘/임희준)은 엑스포에서 소개된 전시물들과 관련한 동요를 새롭게 편곡, 초등학교들과 즐겁게 노래하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총 지난 2월 6개 초등학교 선정을 마쳤고 3월 22일 연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6개교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엑스포에 대한 교육은 전문강사(EXPO GIRL 윤보영)를 초청, 초등학교생 눈높이에 맞추어 엑스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부산시 소통캐릭터 ‘부기’와 대학생 서포터즈가 함께 참여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학생들과 유치송에 맞춰 율동도 함께한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지난 3월 1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온국민 엑스포 염원걷기 대잔치’ 개막무대에 참석, 엑스포 부산유치를 기원하는 흥겨운 모듬복합주곡 ‘타(打)’로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4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4월, 다양한 곳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 일정** 4월 7일(금) 오전 10:30 농심호텔 ‘예비군의 날 축하공연’_부산시립교향악단
4월 8일(토) 오후 2:00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제15회 운수골 축제’
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4월 12일(수) 오후 4:00 화명종합사회복지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월 14일(금) 오후 7:00 금곡도서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월 15일(토) 오후 2:00 강서도서관_부산시립극단
4월 15일(토) 오후 7:00 구덕도서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4월 16일(일) 오후 2:00 사하도서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4월 19일(수) 오전 10:00 4·19 의거 기념탑 ‘4·19 의거 기념식’_부산시립합창단
4월 21일(금) 오전 10:30 강서세무서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4월 21일(금) 오후 4:00 사상생활사박물관_부산시립합창단
4월 27일(금) 오후 2:00 북구치매안심센터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 통영국제음악제 참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3월 31일부터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리는 2023 통영국제음악제에 참가한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통영에서 매년 열고 있는 음악제로, 지난 1999년 ‘윤이상 음악의 밤’과 2000년과 2001년에 열린 ‘통영현대음악제’를 모태로 200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레마이네 차이퉁’에서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고 소개되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음악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도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연주단체가 참가한다.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5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생황의 거장 우웨이와 아코디언 분야의 선구자인 파스칼 콩테와 함께 무대에 선다. 우웨이는 3000년 이상 된 중국 악기인 생황을 통해 과거의 경계를 뛰어넘어 21세기를 연결하며, 유명 작곡가들과 협력을 통해 매년 새로운 작품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 음악 창작의 선두주자이기도 한 파스칼 콩테는 현재 새롭고 혁신적인 음악과 혼합된 미디어 제작을 만들기 위해 연극에서 전자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력하며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통영국제음악제단이 세계적인 출판사인 부시 앤 혹스 및 3개국(독일, 프랑스, 한국) 단체들과 공동 위촉한 신동훈의 ‘생황, 아코디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2인곡’을 아시아 초연으로 들려준다.

석포교회
정기회원 단체가입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하고 있는 석포교회가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자리한 석포교회는 지난 1969년 개척된 후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주는 교회’가 되고자 사역활동과 더불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초대권 증정, 공연 정보 제공 등 회원들을 위한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알고 보면 반할 꽃시

성범중·안순태·노경희 지음 / 태학사 / 1만9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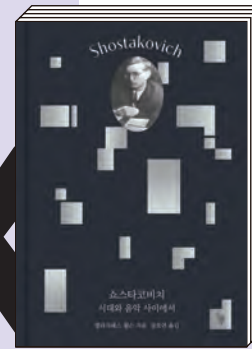
이른 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계절에 따라 피는 52가지 우리 꽃에 관하여 조선의 시인들이 읊은 한시(漢詩)를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인 성범중·안순태·노경희 교수는 모두 울산대 국어국문학부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오래전부터 한국한시학회에서 인연을 맺었고, 최근 몇 년간 매주 모여 해당 시기에 피는 꽃을 읊은 한시들을 읽고 감상해 왔다. 이번에 성범중 교수의 퇴임을 기념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이 책을 출간했다. 한시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을 수록했다. 꽃에 대한 간략한 정보, 꽃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 세시풍속과 연관된 문헌 기록을 함께 소개하는 ‘우리의 꽃 문화’이다. 신사임당, 강세황, 심사정 등 조선 화가들의 꽃그림까지 곁들여진다. 1913년에 전남 순천에 와서 그 지역의 야생화들을 직접 보고 그린 외국인 여성 플로렌스 헤들스턴 크레인이 남긴 책 ‘머나먼 한국의 야생화와 이야기’(1931)의 꽃그림들도 다수 수록했다. 옛 시인들은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꽃에 빗대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백성의 삶을 떠올리기도 했다. 우리 선인들의 삶과 정서는 꽃과 함께 피어나 우리 곁에 있다.



일상그리기

심수환 지음 / 산지니 / 2만원

풍경 수채화 화가로 활동하는 심수환 작가의 스케치북을 엿보는 기분이 드는 책이 나왔다. 꾸준히 기록해 온 180여 편의 일상 그림은 소소한 하루하루를 특별한 날로 남겼고, 그림 옆자리의 짧은 단상은 그 추억에 빛을 더해준다. 심수환은 오랫동안 작가로서 작업을 하면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미술교육과 대안교육 쪽으로 관심을 가지며 부산교육연구소 부소장과 이사를 역임했고 부산 경남지역 대안학교 건립과 운영에도 함께 했다. 이 책을 펼치면 “당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라는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작가는 매일 일기를 쓰듯 일상의 기록을 그림으로 남긴다. 커피콩 두알, 테이블 위 떨어진 꽃잎, 누군가가 건넨 쪽지, 볼펜자루에 끼워 쓰는 연필, 종이봉투, 샌들을 신은 맨발, 동네 골목길 등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물건과 풍경이 그림의 대상이다. 거창한 도구도 필요 없고, 멀리 떠날 필요도 없다. 작은 수첩과 손에 맞는 펜만 있다면 그곳이 화실이 된다. 우리를 둘러싼 물건, 사람, 장소 그 모든 것이 그림의 대상이다. 그림 그리기에 자신 없다는 생각은 말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쇼스타코비치 -시대와 음악 사이에서

엘리자베스 윌슨 지음 / 돌베개 / 5만5천원

쇼스타코비치는 몰라도 영화<번지 점프를 하다(김대승, 2000)>에 삽입되었던 몽환적인 왈츠의 리듬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 왈츠 2번’이다.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화에 삽입된 왈츠의 리듬을 따라하면서 ‘쇼스타코비치’라는 음악가의 이름을 알기도 했다. 쇼스타코비치는 소련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그를 조금 더 아는 음악 애호가들은 그가 스탈린 치하에서 받았던 곤욕을 떠올릴 것이다. 그의 음악은 지금도 살아 있을 때처럼 널리 사랑받고 있고, 그의 비극적이면서도 기구한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연된다. 이 책은 쇼스타코비치를 주제로 한 책 가운데서도 분량과 형식에서 독보적이다. 천재적인 작곡가, 나약한 지식인, 사려 깊은 친구, 다정한 아버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유년에서 노년까지, 인간적인 면모부터 음악에 감춰둔 비밀까지, 쇼스타코비치를 기억하는 이들의 증언을 엮은 방대한 전기이다. 저자 윌슨은 러시아어에 유창했고 본인이 음악가이다. 쇼스타코비치와 관련해 출판된 증언들을 선별하고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 이 책을 썼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3 시즌 프로그램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공연 1일 전 취소 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 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3.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새해의 시작을 여는 실내악의 향연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3. 1. 3.(화)-1. 17.(화)
예술감독 | 김동욱



All that Chamber music :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문화 | 중극장 2023. 1. 3.(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김동욱, 임홍균
• 비올라 | 최영식, 배은진
• 첼로 | 요나 김, 벤자민 휴즈
• 피아노 | 션 케너드 • 클라리넷 | 백동훈



Trio Barclay :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
바클레이 트리오가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와
퀸텟의 진수

문화 | 챔버홀 2023. 1. 4.(수) 7:3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 비올라 | 최영식
• 첼로 | 요나 김 • 피아노 | 션 케너드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3. 1. 7.(토) 5:00pm
전석 10,000원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예술중학교



3인3색(三人三色) in Busan : 실내악 열전

문화 | 챔버홀 2023. 1. 10.(화) 7:30pm
전석 20,000원
※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KNN 앙상블,
앙상블 아토



Rosenstein String Quartet :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

문화 | 챔버홀 2023. 1. 12.(목) 7:30pm
전석 30,000원
• 바이올린 | 알렉산더 크낙, 이수은
• 비올라 | 디르크 헤게만, 황어진
• 첼로 | 마누엘 본 데어 나머, 홍승아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
기(起)-승(承)-전(轉)-실내악(室內樂)

문화 | 챔버홀 2023. 1. 14.(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김현오 • 첼로 | 김지영
• 피아노 | 조민현 • 소프라노 | 양송미
• 피아노 | 김성주 • 비올라 | 김가영 • 동백유랑단



폐막 연주회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심희정

문화 | 챔버홀 2023. 1. 17.(화) 7:30pm
전석 20,000원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 피아노 | 심희정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29.(일) 4:00pm
R 70,000원 S 50,000원 A석 30,000원
• 지휘 | 마놀로 까닌 • 출연 | 빈 소년 합창단



뮤지컬의 본 고장,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곳!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문화 | 대극장 2023. 2. 3.(금)-2. 5.(일)
금요일 7:30pm, 토요일 2:00pm, 7:00pm,
일요일 2:00pm
R 140,000원 OP 13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 출연 | 송일국, 이종혁, 정영주, 배해선, 신영숙, 전수경, 홍지민, 오소연,
유낙원, 김동호, 이주순 외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3. 10.(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색다른 모미의 공주 이야기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문화 | 사랑채 2023. 3. 16.(목)-4. 27.(목)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 출연 | 황자미, 우지현, 박규한, 김현주, 김선정 외 다수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오&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3. 29.(수)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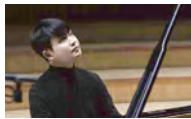
-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 시민 | 대극장** 2023. 1. 10.(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 최수열(예술감독)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사회 | 김석훈 • 첼로 | 송영훈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박종해



인생 2막, 새로운 청춘, 다시 가슴이 뗌다!! 쓰리보이즈 리턴즈

- 시민 | 소극장** 2023.2.10.(금) 7:30pm
2.11.(토) 3: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공연집단The
 - 연출 | 김기영
 - 출연 | 강열우, 정승천, 황해순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낭만 발레의 걸작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 시민 | 대극장** 2023. 4. 7.(금) 7:30pm,
4. 8.(토)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대본 | 배르노이 드 생 조르주, 테오펠 고틀에, 장 코라이
 - 안무가 | 장 코라이, 질 페로 • 음악 | 아돌프 아당
 - 연출 |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유병헌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똘이를 찾아라

-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출연 |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핑컨코러스,
바샤르 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청년 버스커들의 대축제! 부산버스킹페스타

- 시민 | 소극장** 2022. 6. 3.(토) 3:00pm
전석 20,000원
- 연주 | 버스킹 경연에서 선발 된 10개의 밴드
초청가수(미정)



부산에서 만나보는 세계 어린이 청소년극! 세계 어린이·청소년 예술축제 아시테지 인 부산

- 시민 | 소극장** 2023. 7월 중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

문화 | 대극장 2023. 1. 18.(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19.(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첼로 심준호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문화 | 챔버홀 2023. 2.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죽음

문화 | 대극장 2023. 2. 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홍석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 I

문화 | 챔버홀 2023. 3. 3.(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I

문화 | 대극장 2023. 3. 21.(화)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3. 22.(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3.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문화 | 대극장 2023. 4.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금노상
• 바이올린 나승준(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5. 4.(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5. 19.(금) 11:00am,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3. 6. 14.(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기획음악회

BPO Odyssey

문화 | 대극장 2023. 6.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제600회 정기연주회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6. 16.(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문화 | 대극장 2023. 7.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서진 | 바이올린 김재원



제602회 정기연주회(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문화 | 대극장 2023. 9. 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3. 9. 2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김덕기 |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기획음악회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6.(금) 7:30pm
전석 5,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5.(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4회 정기연주회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문화 | 중극장 2023. 10. 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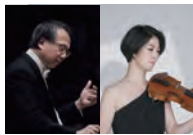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11.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605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2023. 11.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사오치아 루 | 바이올린 백주영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III

문화 | 챔버홀 2023. 12. 1.(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IV

문화 | 대극장 2023. 12. 13.(수) 7:30pm
전석 5,000원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문화 | 대극장 2023. 12. 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사랑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3. 3. 23.(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창은 | 클라리넷 이효주
• 바이올린 이소정 | 타악 성형원



특별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3. 5. 4.(목) 7:30pm, 5.(금)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 지휘 이기선



제190회 정기

모차르트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3. 6. 22.(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2023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3. 7. 20.(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희준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문화 | 중극장 2023. 9. 21.(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손동현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0. 17.(화)-19.(목) 7:00pm
무료



특별 및 교류연주회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3. 10. 20.(금) 7:30pm
전석 10,000원



제191회 정기

멘델스존 엘리야

문화 | 대극장 2023. 11.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2. 2.(목) 7:30pm
전석 10,000원
• 사회 백규진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문화 | 대극장 2023. 3. 31.(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3. 4. 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19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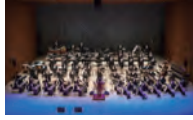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3. 5. 1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6. 20.(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0.(목)-21.(금) 7:30pm
전석 10,000원



제221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13.(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12.(목) 7:30pm
전석 5,000원



제22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1. 16.(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2.(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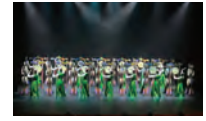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시민 | 대극장 2023. 2. 25.(토) 3:00pm
전석 20,000원



제87회 정기공연

아라비안나이트_No. 1001야화

시민 | 대극장 2023. 5.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예술감독)
• 지휘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회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문화 | 중극장 2023. 7. 12.(금)-22.(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문화 | 대극장 2023. 10. 27.(금)-28.(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예술감독)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문화 | 중극장 2023. 12. 8.(금)-9.(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023. 2. 25.(토) 4:00pm, 7:00pm
2. 26.(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J.M.배리 | 각색 강보람
•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제74회 정기공연

집집·하우스 소나타

문화 | 중극장 2023. 3. 30.(목)-4. 1.(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 작 한현주 | 연출 주혜자



특별공연

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3. 5. 3.(수)-5. 28.(일)
• 원작 H.C.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곡 진소영 | 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소년B가 사는 집

시민 | 대극장 2023. 6. 14.(수)-24.(토)
평일 10:00am, 2:00pm(단체관람),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극작 이보람 | 연출 최용혁



제75회 정기

스타프로젝트 2023-극작가 김문홍전

-안개주의보, 목련꽃 그늘 아래서, 사자의 편지

시민 | 소극장 2023. 9. 7(목)-9(토), 14(목)-16(토),
21(목)-23(토), 시간미정
• 연출 미정



제76회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2023. 12. 7.(목)-1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 | 챔버홀 2023. 2. 21.(화) 7:30pm
초대



제16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5. 27.(토) 5:0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3. 7. 15(토) 5:00pm
전석 2,000원



제16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9.(토) 5:0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3.(금) 7:30pm,
11. 4.(토) 5:00pm
무료



제164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6.(토) 5:00pm
전석 2,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3. 28.(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5. 23.(화) 7:30pm
무료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6. 1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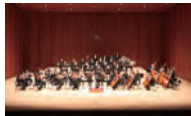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7. 22.(토) 5:00pm
무료



제71회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9. 5.(화) 7:30pm
전석 2,000원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2023년 1월 3일(화)-1월 17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3일 R석 20매, 이외 회차별 20매)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29일(일) 오후 4: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쓰리보이즈 리턴즈

2월 10일(금) 오후 7:30, 2월 11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S석 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0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솔 듀오 바이올린 리사이틀
3월 29일(수)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럽 최고의 스페니시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4월 6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4월 7일(금) 오후 7:30 **종료**
4월 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S석 40매)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4월 22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기타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4월 2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5월 20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6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6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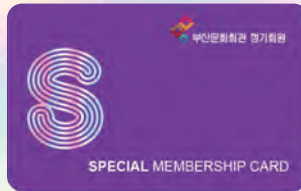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대(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대,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대)
할인매수 : 6대(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대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대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대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대(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대)
할인매수 : 4대(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대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대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대(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대)
할인매수 : 2대(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대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대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도 상반기 다듬채 대관 접수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연습동 다듬채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대관을 접수합니다.

대상 다듬채 1층 연극/무용연습실, 2층 음악연습실(부산문화회관 연습실)

대관기간 2023년 2월 ~ 6월
※ 접수가 가능 일정은 매주 금요일(17:00) 기준으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대관서비스-대관공지사항)

접수기간 상시 접수

**대관구분 및
사용료**

- ▶ 오전 : 09:00~12:00(44,000원)
- ▶ 오후 : 13:00~17:00(55,000원)
- ▶ 야간 : 18:00~22:00(55,000원)
- ▶ 피아노 사용 : 1회 11,000원

결과안내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겹칠 경우 결과 안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rent@bscc.or.kr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접수)

대관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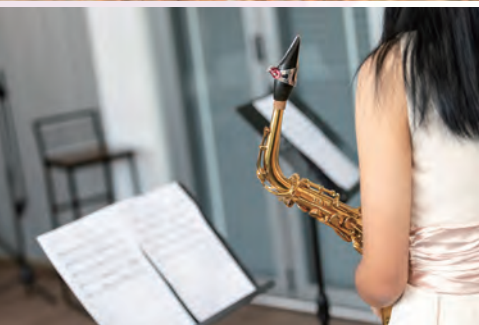
대관신청서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
※ 세부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사용 승인 후 3~7일 이내 납부
※ 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 ☎ 051-607-6051



공모개요

- 사업명 : 「부산버스킹페스타 B.B.B - Busan Buskers Beats」
모집내용 : 전국의 음악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장소 : 1차 - 지정 스팟(해운대, 광안리, 서면등)
2차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응시자격 : 지역제한 없음(부산 가산점 부여)
주최·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협력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참가방법

- 접수기간 : 2023. 3.13.(월) ~ 4.9.(일) 23:00 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공연링크
접수방법 - 1) 네이버신청폼 (<https://naver.me/GQYfXlB1>)
2) 동영상 유튜브 업로드(일부공개)

공모계획

사업절차

3.13-4.9	4.12	4.22-29	7.1
모집공고	온라인예선	버스킹예선 20개팀 진출 (시민공원, 광안리 해변, 서면 젊음의거리 등)	결선 10개팀 진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23. 3.13.(월) ~ 4.9.(일)
온라인예선 : 2023. 4.12.(수) / 서류 및 영상심사 - 20개 단체 선정(예정)
버스킹예선 : 2023. 4.22-29.(토) / 온라인예선 선정단체 대상 버스킹 실연 심사(스팟 미정)
※ 실연참가단체 참가비 10만원 지급, 우천 시 일정 변경
본선경연 : 2022.7.1.(토) 15:00 (10팀내외)
참가곡 : 자유(기존곡 또는 창작곡 기입필), 1곡

시상내역 (5팀)

- 대상 : 1팀 (상장 및 상금500만원)
최우수상 : 1팀 (상장 및 상금200만원)
우수상 : 1팀 (상장 및 상금100만원)
장려상 : 1팀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인기상 : 1팀 (상장 및 상금 50만원)

* 특 전 : 부산음악창작소 음원제작 지원 (수상 팀당 1곡)
시민뜨락축제 초청

심사방법

- 1) 온라인예선 심사 - 심사: 연주력 50%, 참여 의도 및 적합도 50%
- 2) 버스킹실연 심사 - 심사항목 : 연주력 50%, 현장 반응 30%, 온라인 조회수 20%
- 3) 본선심사 - 심사항목 : 연주력 50%, 응원 및 현장 반응 50%

참가자 준수사항

예선 경연시 팀별 15분씩 배정되며, 공연은 촬영되어 (재)부산문화회관 유튜브채널에서 송출 예정. 스팟과 일정은 추후 공지
본선 경연시 드럼, 키보드, 앰프를 제외한 악기는 참가팀에서 준비 본선 진출팀 리허설은 7.1.(토) 오전10시~오후2시 팀별 15분씩 배정되며, 순서는 참가신청 역순임
본선 진출팀은 주최 측에 악기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함

기타사항

예선, 본선 진출팀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예술팀(051-630-5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4** APRIL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Best Western PLUS
Busan Songdo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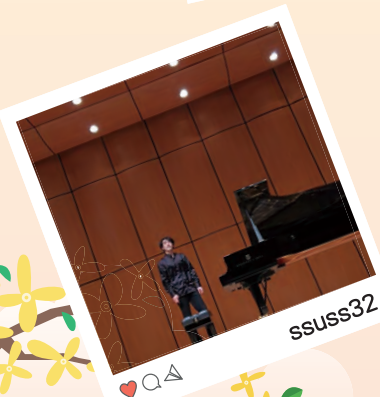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4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4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4.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2023. 3. 16(목) - 4. 27(목)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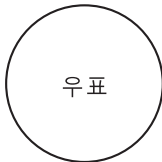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4

APRIL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MUSIC



지휘 이건석



피리 박순자



대금 이창훈

3월 28일

관객의 날



소리 박성희

장미악



가수 신승태

2023. 4. 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티켓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Program

-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 피리 협주곡 "Neo C (Commander)"
- 피아졸라 작품에 의한 대금 협주곡 "Great Astor" • 따뜻한 세상을 부르는 "오늘은"
-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 창부타령 • 사랑불 • 희망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3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3만원 | 2층 2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www.bsc.or.kr
051-607-6000

티켓 오픈일
정기회원 선오픈 2023. 3. 7.(화) 14시
일반회원 오픈 2023. 3. 8.(수) 14시



호통판사
천종호
4.22.(토)
15:00



미국 방송인
타일러 라쉬
5.13.(토)
15:00



리치언니
박세리
6.9.(금)
15:00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10.14.(토)
15:00



미술사학자
유흥준
7.1.(토)
15:00



104세 철학자
김형석
11.11.(토)
15:0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우리 아이 첫 번째 콘서트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핑크퐁 클래식나라

똥피를 찾아라



출연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바이올린)
바사르 오케스트라 외

2023. 5. 20 SAT 3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티 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주 관 | CREDIA MUSIC & ARTISTS

| 예 매 | 부산시민회관(051-607-6000) 또는 인터파크 티켓(1544-1555)

©THEPINKFONGCOMPANY All Right Reserved